학술 세미나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언론학회

관덕정, 제주를 기억하는 광장

장소성과 재현으로 본 도시기억

2026년 11월 6일(금) 14:00~17:30

스타즈호텔 헤리티지 연회장

주최·주관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언론학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학술 세미나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언론학회

관덕정, 제주를 기억하는 광장

장소성과 재현으로 본 도시기억

2026년 11월 6일(금)
14:00~17:30
스타즈호텔 헤리티지 연회장

주최·주관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언론학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프로그램

사회 | **오 유 정**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시 간	항 목	내 용
14:00~14:30	등 록	참가자 행사 등록
14:30~14:50	개회식	인사말/사진 촬영 개회사 **김 완 병** 제주학연구센터장 환영사 **정 용 복** 제주언론학회장
14:50~15:00	휴 식	
15:00~16:00	주제 발표	· 관덕정을 바라보는 관점: 제주 원도심의 역사 건축과 장소성 **김 태 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장 · 觀德亭, 마음먹고 가는 곳에서 슬리퍼 신고 가는 곳으로 **권 정 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장
16:00~16:10	휴 식	
16:10~17:30	종합 토론	좌장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관덕정 주변 공간에 대한 기억과 변화 **고 봉 수** 제주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 언론이 기록한 관덕정 주변 원도심의 변화 **고 상 현** 제주CBS 기자 · 타도시 역사공간 활용사례를 통한 관덕정의 시사점 **고 재 원** 제주자연돌봄센터장 ·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과 확장 **고 병 정**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변 지 철** 연합뉴스 기자 · 관덕정, 다시 잇는 광장의 기억: 문화기획 사례로 본 관덕정 활용의 방향 **하 정 아** 문화기획가, 축제 감독

목 차

❑ 개회식

▪ 개회사: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 7

▪ 환영사: 정용복(제주언론학회장) ····· 9

❑ 주제 발표

▪ 관덕정을 바라보는 관점: 제주원도심의 역사 건축과 장소성 ····· 11

– 김태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과장)

▪ 觀德亭, 마음먹고 가는 곳에서 슬리퍼 신고 가는 곳으로 ····· 33

– 권정우(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장)

❑ 종합 토론 ····· 53

▪ 좌 장: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토 론: 고봉수(제주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 55

고상현(제주CBS 기자) ····· 67

고재원(제주자연돌봄센터장) ····· 71

고병정(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75

변지철(연합뉴스 기자) ····· 83

하정아(문화기획가, 축제 감독) ····· 89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관덕정, 제주를 기억하는 광장-장소성과 재현으로 본 도시기억」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제주언론학회 정용복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관덕정은 제주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관덕정의 의미는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관덕정과 그 앞 광장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제주의 중요한 사건과 일상이 펼쳐졌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정치와 행정,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이곳을 거쳐 갔으며, 그 과정에서 관덕정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관덕정과 그 주변 원도심의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역사적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덕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제주학과 언론학의 관점에서 관덕정을 함께 바라본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역사적 공간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언론에 기록된 관덕정과 원도심의 변화, 지역 주민들의 기억, 문화유산의 활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사공간의 재현과 확장 등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간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관덕정과 제주 원도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11월 6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완 병**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언론학장 정용복입니다.

오늘 뜻깊은 학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완병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후원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맡아주신 김태곤 과장님과 권정우 소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고봉수 교수님, 고상현 기자님, 고재원 센터장님, 고병정 교수님, 변지철 기자님, 하정아 문화기획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관덕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관덕정은 참으로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이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관덕정은 조선시대 정치와 군사, 행정의 중심이었고, 근현대에는 시민의 삶과 저항, 아픔과 희망이 교차했던 광장이었습니다. 1947년 3·1절 경찰 발포 사건의 아픈 기억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논문을 쓰면서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바비 젤라이저의 '저널리즘과 기억'을 여러 차례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덕정을 생각하면서 익숙하게 여겼던 이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노라의 관점에서 관덕정은 제주라는 공동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왔는지 되묻게 하는 장소입니다.

르페브르의 관점에서는 권력의 공간이 시민의 삶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얻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젤라이저의 문제의식이 더해집니다. 도시는 건축물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언론이 어떤 역사를 기록했고, 어떤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일도 우리 언론의 몫입니다.

오늘 김태곤 과장님께서는 관덕정의 역사적 건축과 장소성을, 권정우 소장님께서는 '마음먹고 가는 곳에서 슬리퍼 신고 가는 곳으로'라는 주제처럼 관덕정을 시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가능성을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한 분은 관덕정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다른 한 분은 앞으로 누구의 공간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다룰 언론의 기록과 도시의 변화, 역사문화공간의 활용, AI와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재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할 질문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지키면서 오늘의 삶을 담아낼 것인가."

무엇보다 관덕정이 누구에게나 가까운 광장이면서도, 그 역사는 누구도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제주의 과거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의 도시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1월 6일

제주언론학회장 **정 용 복**

주제 발표

관덕정을 바라보는 관점:
제주 원도심의 역사 건축과 장소성

김 태 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장

관덕정을 바라보는 관점 : 제주 원도심의 역사 건축과 장소성[1)]

김 태 곤

1. 관덕정의 성격
2. 관덕정과 도시구조
3. 건축적 성격과 기능
4. 원도심에서 관덕정의 의미
5. 관덕정의 국보 승격

1. 관덕정의 성격

오늘날 관덕정은 제주를 대표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건축물, 제주목 관아를 대표하는 건축물, 혹은 제주를 상징하는 전통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관덕정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적 특징과 건축적 형식, 넓은 광장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관덕정은 독립된 요소의 건축물이 아니라 제주읍성의 도로와 관아, 광장과 연계하여 군사적·행정적 기능이 집중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요소의 관덕정을 제주읍성 이전의 장소성, 광장과 관아, 제주의 원도심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덕정은 전통 건축 분야에서 흔히 누정(樓亭)건축으로 [2)]분류된다. 누정건축은 누(壜)와 정(亭)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풍류와 휴식을 즐기거나 특정한 지역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에 입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덕정은 조선시대 유림들이 독서와 강학, 휴게 등을 위해 건립하였던 일반적인 정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감영(監營)에 건립되어 사용된 '누각(樓閣)'과도 평면 형태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누(樓)'는 일반적으로 건립 주체가 관이나 왕실, 서원 및 향교, 사찰 등인 경우가 많고 높이 띄워서 마루만으로 구성하는 다락형이 일반적이다.[3)] 이러한 측면에서 관덕정은 관영

1) 본 발표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주 내용으로 작성하였음
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탈 국가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조경건축 / 누정

건축으로서의 누(樓)나 정(亭)의 어느 한 유형으로 구분되기 어렵다. 특히, 입지적인 측면에서 유림들의 정자나 지방 관아 소속의 누정과는 다르다.

정자는 일반건축과 달리 휴식과 은거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잡한 마을이나 읍치에서 벗어난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입지하며, 궁궐이나 관아의 정자는 후원과 함께 꾸며지는 것이 보통이다.[4] 한편, 관아 누정의 건립은 접객, 의례, 연희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건축은 궁궐, 사찰, 사당, 민가 등 조성되는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위계와 특성을 가지게 되며 위계에 따라 기단과 초석, 기둥과 공포, 처마와 기와의 규모와 양식 등 건축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누정의 경우 궁궐이나 사찰, 관아 건축물에 비하여 위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모든 누정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최초 축조시 사찰 또는 사원의 일부로서 축조되었으나 후대에 본래의 기능은 소실되고 누정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성곽의 고지대에 설치되어 전시에는 지휘소, 평시에는 경관을 즐기는 장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1 진주 촉석루, 경남도지정 유형유산



그림 2 밀양 영남루, 국보

2. 관덕정과 도시구조

관덕정의 입지는 제주읍성의 도시구조 전체로 보았을 때 경관적으로 뛰어나거나 군사적 요충지로서 적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제주읍성에서는 남동측의 제이각이나 동측의 운주당, 공신정, 결승정 등의

3) 김왕직「경상도 우리 정자」. p10. 2021. 도서출판 집.)

4) 김왕직은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 남원 광한루, 삼척 죽서루, 제주 관덕정을 관영 누각으로 구분하고 관아에서 정자와 함께 누각을 지어 접객과 행사, 의례나 연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으며, 감영에 정자 및 누각과 내아 등이 지어지고 규모가 커진 것은 조선후기 감영이 유영(留營) 제도로 바뀌면서 관찰사가 가족과 함께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서술하고 있다. (前揭書. p17, p21)

입지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외세의 감시나 경관적 조망권이 오히려 우수한 장소이다. 관덕정은 제주읍성 도시의 중심부에 넓은 광장과 결합하여 조성되었다. 광장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관덕정의 공간적 기능은 크게 확장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제주목과 대정·정의현의 정치·군사·행정·문화적 통치 행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제주읍성은 일반적인 내륙 읍성과 다른 공간구조를 갖는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정치·행정·군사 기능이 복합된 제주 지역의 통치체계를 수용할 공간적 수요가 발생하였다. 제주 목사는 형옥, 소송, 부세의 징수, 군마(軍馬)의 고찰, 왜구의 방비 등 8도 관찰사의 기능과 부·목·군·현 체제 아래에서의 지방 수령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것은 전라도 관찰사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행정 체계였다. 관찰사로서의 기능과 제주 목사로서의 기능, 두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실무를 지휘하던 판관(종5품)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행정체제로 인한 기능은 관청(官廳)의 배치에도 반영되었다. 제주목의 수령인 제주 목사와 6방의 집무기능을 담당하는 관청인 이청(吏廳)과 목사 관할의 지방 군사기구인 장청(將廳)은 제주읍성의 중심 권역인 관덕정 광장의 북측 상아 영역에 배치되고 남측에는 판관의 집무공간인 이아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 형태는 광장과 결합하며 설치된 관덕정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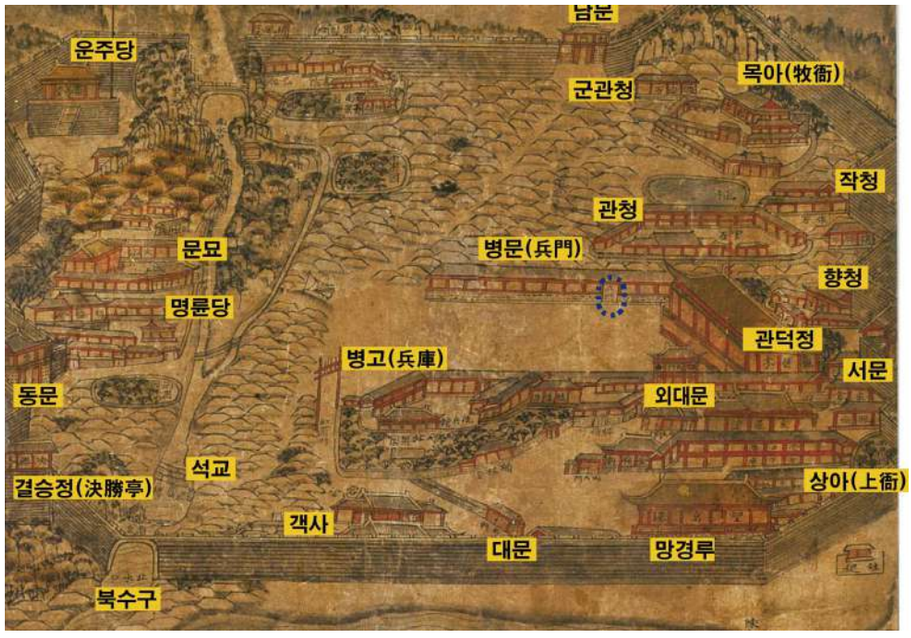


그림 3. 관덕정과 주요건물(제주목도성지도 <탐라십이경도>)

아와 이아 두 영역을 연계하는 접점으로서의 기능적·공간적으로 주요한 매개요소로 작용하였고 제주 읍성만의 독특한 도시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조선시대에는 통치이념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예치(禮治)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로체계를 정비하였다. 도로의 위계에 따라 폭을 정하고, 도로 옆 도랑까지 법제화하였다.[5] 『경국대전』에는 대로, 중로, 소로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한양 도성을 제외한 지방 읍치의 도로망 정비는 조선 후기까지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1770년 신경준이 저술한 『도로고(道路考)』[6] 서문(序文)에는 조선의 도로망이 도로표지와 시설 배치가 불규칙하여 일반인과 국정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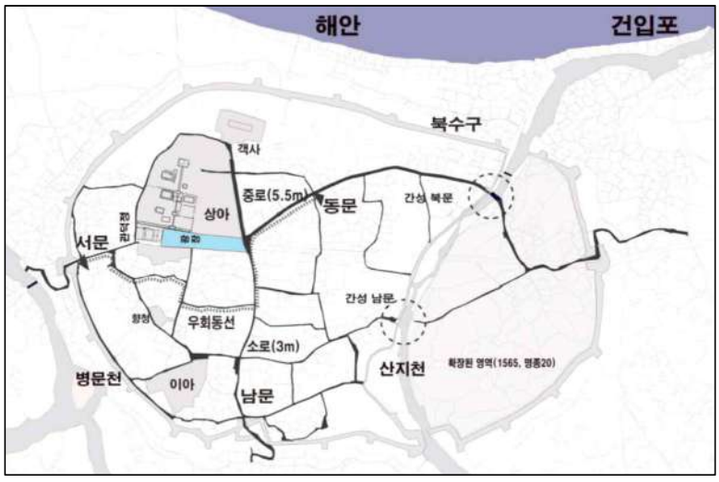


그림 4. 제주읍성 도로체계
중로5.5M(광장↔객사, 광장↔동문),
소로3M(광장↔남문, 중로 이외 전구간)

도로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지방통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 도로체계뿐 아니라 읍성 내 도로망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대부분이 한양 도성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 읍치(邑治)의 구조는 유사한 공간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읍성 내 도로는 성벽, 출입문과 함께 읍성의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읍성에서는 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도로를 가장 높은 위계를 갖도록 구성하는 'T' 자형 도시구조가 일반적이다. 제주읍성의 동문과

5) 『경국대전』 권6 교로((橋路)에는 한성부의 도로 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로(大路)는 너비가 56척(尺), 중로(中路)는 16척(尺), 소로(小路)는 11척(尺)이다. 양옆의 수구(水溝)는 너비가 각 2척(尺)이다.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위계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도로를 침범하여 점령하거나 길에서 흙을 파가거나, 혹은 오물을 버리는 자가 있으면 해당 부(部)의 관리 및 관령(管領)에게 책임을 무는 등의 관리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관해서는 지방도로 10리(里)마다 소후(小堠-작은 이정표)를 세우며, 30리(里)마다 대후(大堠-큰 이정표)를 세우고 역(驛)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후(堠-이정표)에는 이수(里數-거리)와 지명(地名)을 새기도록 규정하였다.

6) 1770년(영조 46) 여암(旅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저술한 것을 1795년(정조 19)경 필사한 책

서문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관덕정 광장에서 남문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연결된다.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적원도를 분석해 보면 제주읍성 동문에서 관덕정 광장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와 광장에서 객사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5.5m로 제주읍성 내 도로 중에서 가장 넓다. 도로 좌·우 도랑을 감안하면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로(16尺)와 일치한다. 남문에서 중앙 광장까지의 이어지는 남북도로가 평균 3m의 소로(11尺)임을 감안할 때[7] 객사까지 중로로 연결하여 객사의 위계와 예제적 사상을 실현시키는 모습이다.

이러한 위계와 예제적 사상이 실현되는 매개체가 관덕정 광장이다. 이 광장은 남문과 동문에서부터 이어진 도로가 교차되는 곳에서부터 관덕정까지 형성되어 있다. 관덕정 동서 방향으로는 북측 상아와 남측 이아의 회랑이 관덕정 공간을 에워싸고 있다. 관덕정 좌우의 회랑은 동문과 남문에서 이어진 동선의 교차지점에서부터 관덕정 방향으로 강한 구심성을 형성하고 광장으로서의 경계성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의 관아 건물과 도로에 의해 형성된 관덕정 광장은 제주읍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시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광장 동측 단부의 교차 지점에서 시작되는 동선은 2개이다. 북측 객사를 향하는 동선과 광장 서쪽 끝 구심점인 관덕정을 향하는 동선이다. 객사 방향의 동선이 예제적 규범에 의한 동선이라면, 관덕정 광장으로의 동선은 읍성 내 관청들을 연결하는 기능적 동선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읍성 내의 도로망은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관아인 상아와 이아, 객사, 동・서・남문 그리고 간성 남문과 북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과 이를 서로 연결하는 지선도로가 읍성 전체의 도로체계를 이루고 있다. 읍성 내 동서방향 간선도로는 동문을 통하여 화북포・조천포로 이어진다. 이 길은 제주에서 한양 도성의 동작진까지에서 연결되며,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서 '제5로 제주로(濟州路)'라고 칭하였다. 이 도로는 당시 제주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위계가 높은 도로였다. 한양에서 제주목으로 부임하는 관리뿐만 아니라 물류도 동문으로 연결되는 동서도로를 통해 제주읍성으로 들어온다. 다른 읍성과 달리 남북도로가 아닌 동서도로가 주요도로가 되는 것은 제주와 한양을 연결하는 연륙교통의 거점인 화북포・조천포가 제주읍성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일제강점기 지적원도를 AutoCAD로 작도하여, 도로 폭을 측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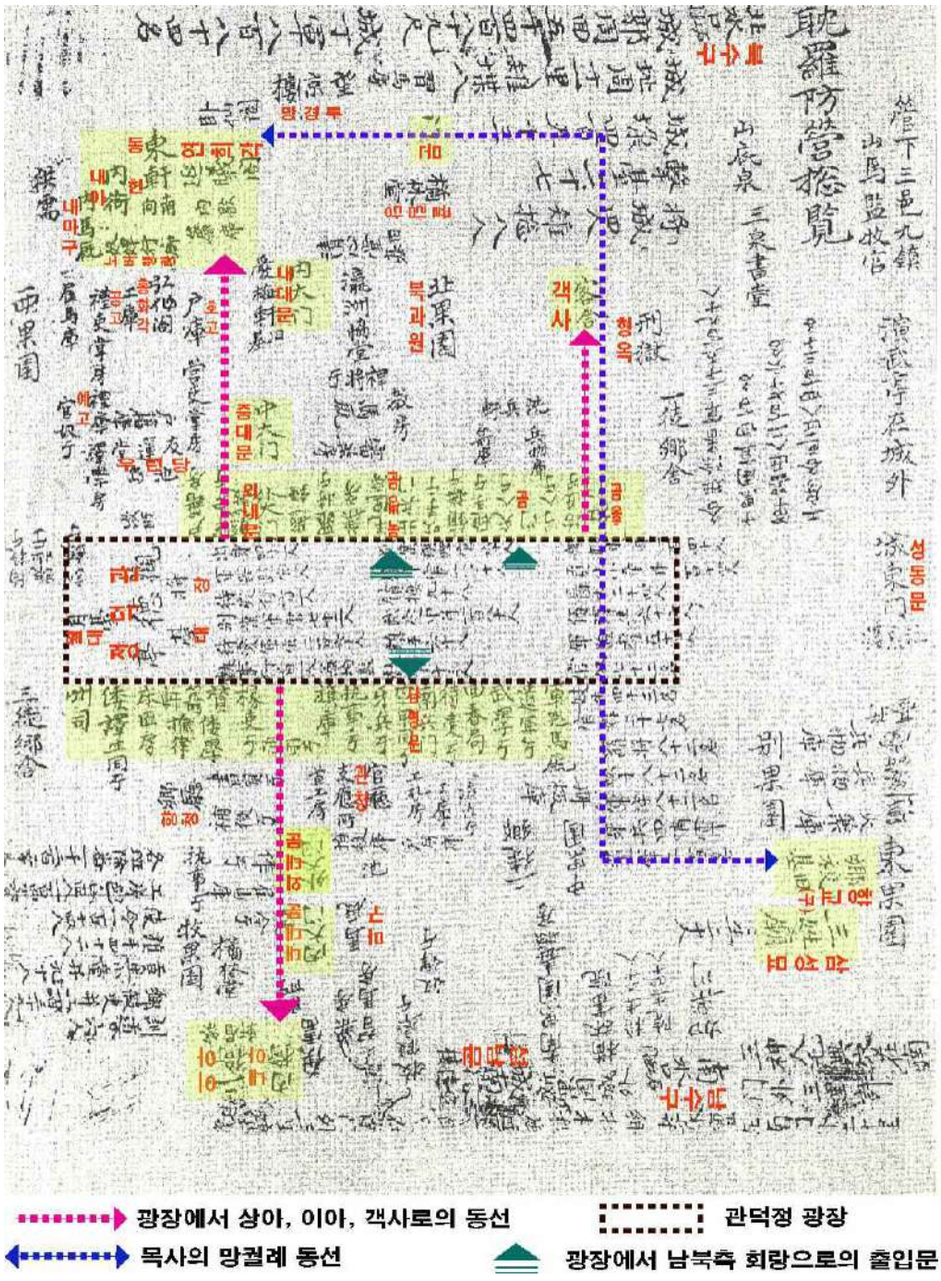


그림 5. 탐라방영총람의 배치도와 주요 동선 (출처: 『탐라방영총람』)

『지영록(知瀛錄)』[8] '도영절차(到營節次)'에는 에는 제주 목사가 부임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화북·조천포로 제주에 입도한 제주 목사는 제

8) 『지영록(知瀛錄)』은 제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문지리지이다. 이익태(李益泰, 1633~1704)가 제주 목사 재임 기간 (1694년~ 1696년) 동안의 업무와 행적, 제주 관련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주읍성의 동문으로 진입한다. 이후 관덕정 광장에서 군례를 받고 관아로 들어가는 절차이다.[9] 내륙지역 읍성에서 목사의 부임이나 공식 행사가 남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제주읍성에서의 주요 물류는 공물(貢物)의 진상(進上)이었다. 공물 중에서도 공마(貢馬)는 국가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제주 목사의 중요한 군사적 업무 중 하나였다. 관덕정 광장에서 제주 목사에 의해서 최종 점마(點馬)된 수십, 수백 필의 말들은 동서 간선도로를 통하여 동문을 거쳐 화북·조천포로 이동 후 선박을 통해 육지로 운송된다. 이원조(李源祚) 목사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기록을 보면 이러한 물류는 매월 이루어졌으며[10], 말 이외에도 감귤, 전복 등의 진상품도 동일한 동선을 거쳐 운송되었다. 정기적으로 진상되는 물품 중에서도 살아있는 말을 집단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공마(貢馬) 진상을 위한 물류단의 규모가 가장 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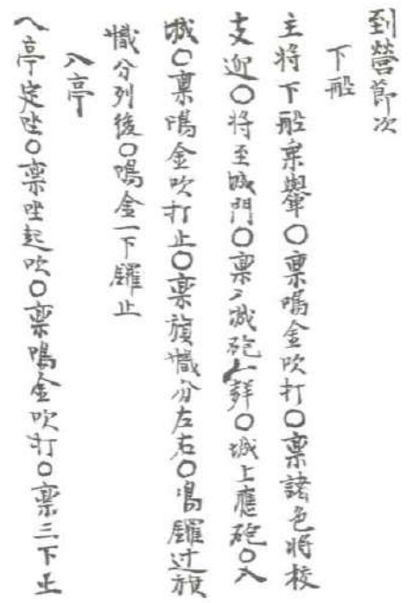

到營節次
下船
主將下船乘轝○稟鳴金吹打○稟諸色將校
支迎○將至城門○稟ㄱ城砲上拜○城上應砲○入
城○稟鳴金吹打止○稟旗幟分左右○鳴鑼过旗
幟分列後○鳴金一下鑼止
入亭
入亭定坐○稟坐起吹○稟鳴金吹打○稟三下止

그림 6.「도영절차(到營節次)
(출처: 제주시,「도영절차(到營節次)」,2007)」

관덕정은 광장과 결합하여 외형적으로는 내륙지방의 일반적인 읍성의 도

---

9) 도영절차에서 나오는 첫 대목은 하선(下船)이다. **제주의 화북.조천포**에서 목사가 배에서 내려 가마에 오르면 명금과 취타를 울린다. 기다리고 있던 여러 아전과 장교가 목사의 도착을 알리고, 목사는 조천진성에 들어서서 진성의 최상단에 위치한 정자에 앉는다. 이 과정에 깃발, 포성을 울려 목사의 도착을 알리는 의식을 치루게 된다. 화북포. 조천포에 위치한 진성에서 도착 의식을 거행한 후 목사는 상영(上營), 즉 제주목을 향하여 이동하게 된다. 이때에도 명금과 취타, 포를 쏘아 예를 갖추어 목사의 이동을 알린다.

제주읍성의 동문에 도착하면 수문장이 맞이하고 목사는 말에서 내려 성문에 들어서는 의식을 갖는다. 의식을 치른 후 다시 가마에 오른 목사는 **제주읍성 동문을 들어서서 동서 간선도로를 따라 관덕정으로 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포와 취타를 이용하여 목사의 이동을 알리고 예우를 갖추어 호위하게 된다.

목사가 관덕정 앞 장대에 도착하면 중군이 무릎을 꿇어 맞이한다. 목사가 장대에 오르면 기다리고 있던 대변행수 등의 아전이 먼저 참배를 하고, 이어서 중군 및 여러 집사 등이 군례를 거행한다. 군례를 마치고 나면 삼읍의 수령, 연대와 봉수의 별장 등이 차례로 예를 올리고 해산하게 된다.

10) 이원조(李源祚)「耽羅誌草本」은 제주 목사 재임기간(1841년 헌종9년 ~ 1843년, 헌종9년)동안 제주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기록한 책으로, 정월을 제외한 매월 진상하는 추복(두드려서 말린전복), 조복(가늘고 길게 썰어서 말린 전복), 인복(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 청귤(귤의 한 품종), 노루가죽, 오징어, 반하(약초), 석결명(약재로 쓰는 전복 껍질), 비자(기생충퇴치약), 당금귤(귤의 한 품종), 감자(귤의 한 품종), 동정귤(귤의 한 품종), 당유자, 산귤 등의 진상품의 수와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정조 진상마, 탄일 진상마, 연례 진상마 등 12종의 진상마의 수와 진상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제주 목사의 진상품의 종류와 별개로 제주판관이 공조, 봉상시, 혜민서 등의 중앙의 주요 관청에 봉진하는 품목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시구조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기능적으로는 제주지역의 통치체계, 물류체계, 도로체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고도의 실용적 기능을 담아내고 있다.

3. 건축적 성격과 기능

관덕정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전면 한 칸을 마루가 아닌 박석을 깔았다. 이것 또한 내륙지역의 개인 또는 관영(官營)에 속하는 누정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내륙지역의 정자는 마루와 온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관덕정에서는 온돌 없이 마루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면 한 칸에 박석을 깔고 있다. 누정의 대부분이 일부 공간에 온돌을 구성하여 사적(私的), 정적(靜的)인 형태로 구성하는 것에 비하여 관덕정은 공적(公的)이고 동적(動的)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관영건축의 누정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관덕정은 목사의 중요한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립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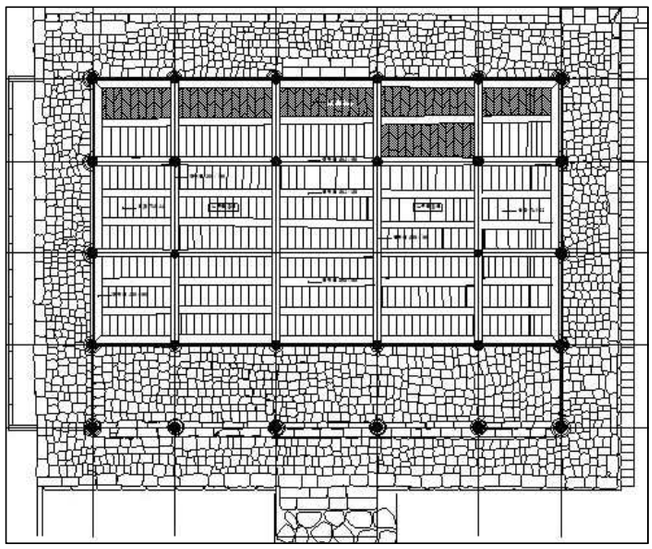


그림 7. 제주 관덕정 평면(월대 부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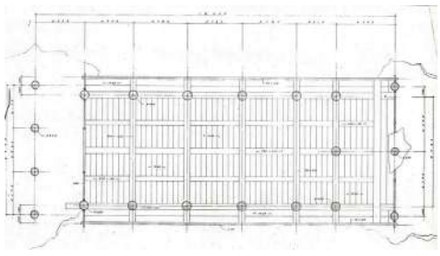


그림 8. 삼척 죽서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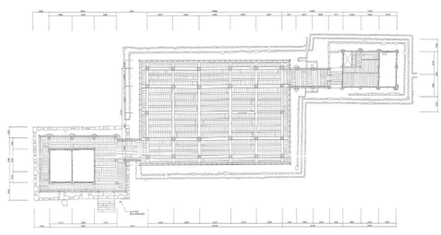


그림 9. 밀양 영남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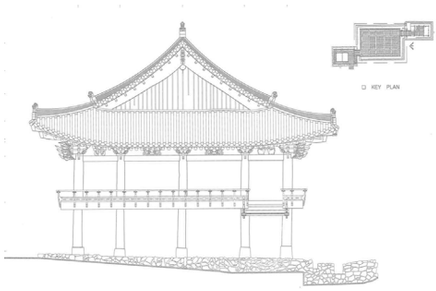


그림 10. 밀양 영남루 우측면도



그림 11. 밀양 영남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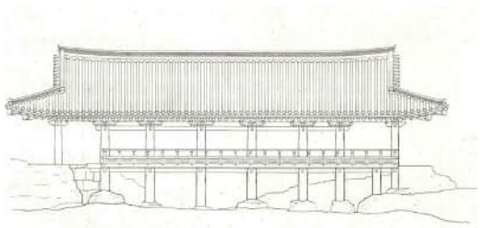


그림 12. 삼척 죽서루 정면도



그림 13. 삼척 죽서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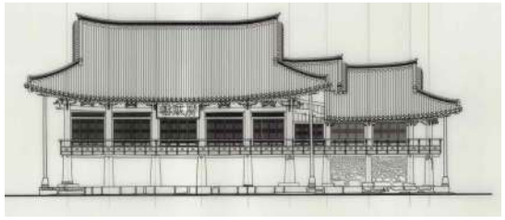


그림 14. 남원 광한루 정면도



그림 15. 남원 광한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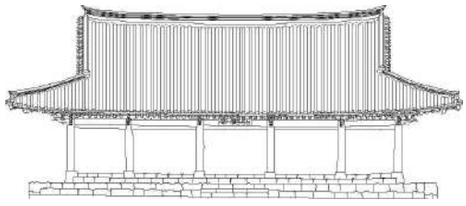


그림 16. 제주 관덕정 정면도



그림 17. 제주 관덕정 전경

누정건축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경관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누정이 입지한 장소는 해변 혹은 강변이나 수림이 우거진 곳의 크고 작은 수변 주변의 경승지이다. 이것은 산간이나 평야 혹은 건립 주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관덕정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되는 삼척의 죽서루나 밀양의 영남루, 촉석루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덕정과 같이 개방적이면서 정치, 군사적 또는 공공적 성격의 장소에 건립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장소의 입지적 특징은 건축물의 구조에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누정이 입지하는 장소는 평지보다는 주로 경관이 우수한 경사지에 자리하기 때문에 일반 단주초석과 장주초석이 혼합되는 유형, 자연 암반을 초석으로 쓰는 유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누각의 경우에는 장주초석(長柱礎石)을 이용하거나 누하부(樓下部)에 하층 기둥을 설치하여 중층형태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관덕정은 목사와 판관의 업무영역 중간 지점인 읍성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또한 기능면에서는 제주목사의 집무 수행뿐 아니라 전라도 관찰사를 대신하여 제주 3읍의 통치를 총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능적 중요성은 관덕정 건축물의 세부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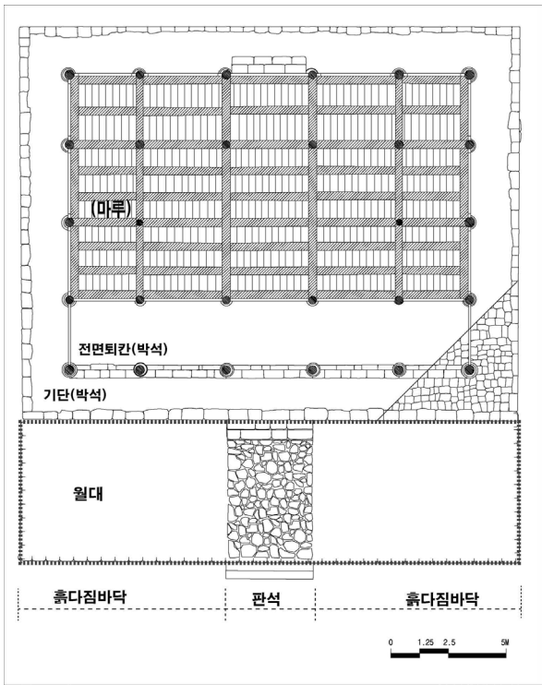


그림 18. 관덕정 평면도(월대, 기단, 전면퇴칸)

관덕정의 기단 정면은 잘 다듬은 제주석(현무암)을 두벌대 기단을 구성했다. 배면은 외벌대이고, 좌측면은 네벌대이다. 기단 하부에 지대석을 설치하였고, 기단 모서리부의 장대석은 ㄱ자로 꺾어 가공하여 맞춤하고 있다. 우측면 기단의 모습은 상·하 이중기단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림 19. 관덕정 기단 결구법



그림 20. 관덕정 전면 퇴칸 바닥

기단 전면부에는 궁궐 등 권위 건축에서 보이는 월대(月臺)가 조성되어 있다. 월대의 규모는 21.6m×6m로 일반적인 누정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월대는 기단 전면부에 2벌대로 조성되어 있다. 1900년경 사진을 보면 관덕정의 기단과 월대에는 전면 중앙 어칸과 좌우에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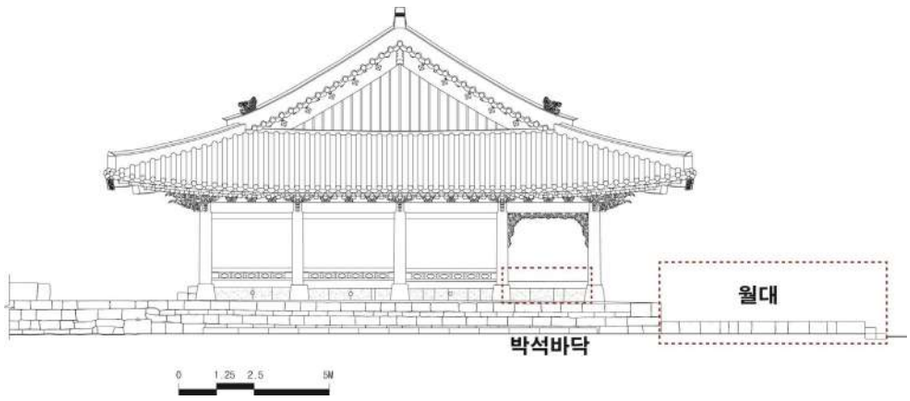


그림 21. 관덕정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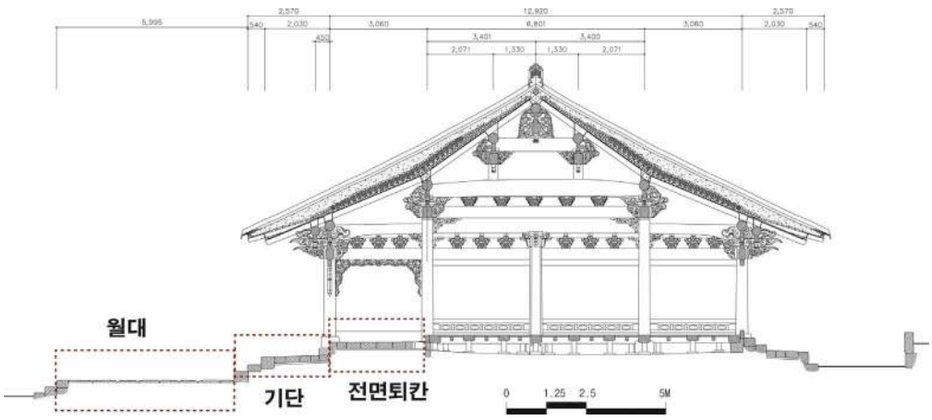


그림 22. 관덕정 종단면도



그림 23. 월대 전면에 설치된 계단시설과 광장의 답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보는 제주역사>, 2009)



그림 24. 광장 전 구간에 구성된 답도(踏道)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보는 제주역사>, 2009)



그림 25. 1914.6월 촬영된 광장의 답도(踏道) 시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보는 제주역사>, 2009)

기단과 월대 앞에는 3개의 계단이 시설되며 중앙계단에는 답도(踏道) 형태의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말 사진에서도 확인되고, 1914년 6월 도리이류조(鳥居龍藏)가 촬영한 사진에도 선명하게 남아있으나, 1920년경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답도는 1915년에서 1920년 사이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답도가 시작되는 시점이 광장의 진입부이며, 시설의 폭만큼 장방형의 장대석이 바닥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대석의 폭은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추정하면 폭 60~70cm, 길이 90~100cm 내외 정도로 보인다.



그림 26 화성 융릉 정자각 전경(향로,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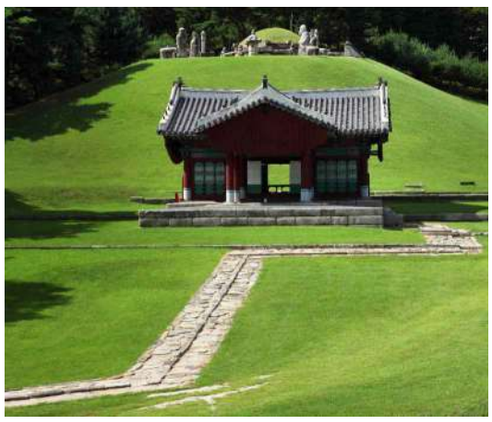


그림 27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전경



그림 28 전주 경기전 정전 진입부 전경



그림 29 경복궁 근정전 월대와 어도 전경

이 시설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형태는 내륙지방의 누정 건축물에서 볼 수 없다. 답도 시설은 관덕정의 월대와 연계한 동선으로 공적 기능이 강한 예제 건축물이나 위계가 높은 건축물에 주로 보이는 '어도' 등의 형태와 유사하다. 특히 관덕정 좌우에 설치된 회랑과 함께 동문과 남문에서

유입되는 시선과 동선을 관덕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면서 강한 진입성과 구심성을 갖게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보이는 관덕정을 향해 시선과 동선이 강하게 집중되고, 광장을 완성시키는 도시경관 구조로서 제주읍성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관덕정은 제주읍성의 랜드마크이면서 동시에 도시 동선의 결절점이자 시각적, 공간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다.

관덕정은 전면 퇴칸에 마루대신 박석을 설치하였다. 일반 누정이 마루와 온돌을 통해 사적이고 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과 달리 관덕정은 온돌 없이 마루를 중심으로 하고 전면에 박석을 설치하여 공적이고 동적인 공간 구성을 하였다. 관덕정의 기단에는 제주석인 현무암을 사용하였고, 정면과 배면, 측면의 지형 조건에 따라 기단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건축적 기법들은 관덕정의 내부공간에서 전면 박석 퇴칸, 월대, 답도로 이어지며 자연스러운 공간의 연속성을 갖게 하고, 좌우 회랑과 함께 광장으로서 일체적인 공간 구성을 이루게 하였다.

4. 원도심에서 관덕정의 의미

관덕정은 조선시대 제주 읍성의 중심부에 건립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선덕대(宣德臺)[11]' 라는 사대(射臺)가 있던 중심적인 장소로서 관덕정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이 갖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성과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조선시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광장으로서 기능으로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관덕정 광장이라는 공간을 한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성벽과 좌우 회랑 등은 대부분 훼철되었고, 광장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관덕정을 둘러

11) 관덕정 배면에 기단부와 인접하여 있다. 대(臺)의 축조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덕대가 있는 부지는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 사대로 적합한 지형을 하고 있다. 선덕대는 관덕정 배면에 위치하여 관덕정 기단과 폭은 같으나 기단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다. 『增補耽羅誌』의 <古今事蹟>조의 기록으로 이미 활쏘기 훈련장이 있던 장소에 관덕정을 건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종대왕 29년 정묘년(1447). 6월에 통정대부 안무사겸목사 신숙청이 도임하였다. 관덕정을 건립하였다. **이보다 앞에는 영(營) 남쪽에 활을 쏘는 곳 한 구역이 있는데 훈련하는 곳이라 불렀다. 예전에는 집이 없어서 보기에 장엄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도 막을 수가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유감스러워 하였다. 공(公)이 다스린 다음해 가을에 만사는 잘 다스려지고 세월도 화평하였다. 이에 일이 한가한 **장인들과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굽고 돌을 쌓아서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새로 정자를 세워서 이름을 관덕정**이라 하였으니, 대개 활을 쏘는 것은 덕량(德量)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높다랗고 넓고 뚜렷하여 우뚝히 제도를 갖추었으니 참으로 한 고을의 장관이라 이를 만하였다.



그림 30. 관덕정 배면 선덕대(宣德臺)



그림 31. 관덕정과 선덕대(관덕정 뒤쪽에 보이는 축대) 전경

싼 전통적인 공간 구조는 크게 변하였다. 객사와 상아·이아 영역도 경찰서, 자혜의원 등 새로운 시설로 대체 되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정치, 시민 항쟁, 경제 활동, 입춘굿과 같은 문화·축제가 이곳에서 이어졌다. 관덕정 광장은 조선시대 군사적 목적으로 출발 하였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정치·행정·문화·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시민 광장으로 기능이 확장 된다. 이것은 공간의 형태는 변화 했지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사건이 만들어지는 중심지로서의 장소성은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관덕정은 조선시대 지어진 역사적 건축물에서 도시의 기억장치로 진화하였다. 일반적인 누정 건축이 아닌 공적이고 동적인 활동을 수용하던 관영 건축이었다. 특히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월대와 답도 등과 유기적으로 연속되는 공간구조를 통해 외부공간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보존 가치를 가진 하나의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하였다. 제주읍성의 공간적 중심을 인식하게 하는 랜드마크에서 근현대 시민사회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원도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게 하는 역사적인 기억들을 켜켜이 축적하여 왔다.

5. 관덕정의 국보 승격

2026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전국적으로 총 15,864건(국가지정·등록유산 4,503건, 시도지정·등록유산 7,285건, 문화·자연유산자료 2,959건)이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국보는 369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가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국보의 존재 여부가 곧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건축문화 속에서 어떠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관덕정의 국보 승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누정건축의 국보 승격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밀양 영남루와 삼척 죽서루가 있으며, 2026년 7월 1일에는 남원 광한루가 국보로 승격되었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초기에 창건된 관영 누각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을 갖추고 있어 관덕정과 건축 규모 및 기본 형식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광한루는 국보 승격 심의 과정에서 건축 시기와 양식 등에 관한 고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건축사적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국보로 승격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와 고증이 국보 승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밀양 영남루는 2023년 12월 28일 국보로 승격되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을 갖춘 대규모 관영 누각으로, 관덕정과 건축 규모 및 형식에서 비교할 만한 특징을 지닌다. 영남루는 건축물 자체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밀양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역사적 입지와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같은 날 국보로 승격된 삼척 죽서루는 관덕정과 입지 여건이나 건축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연지형을 활용한 독특한 건축구조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역사적 인물 및 문학적 기록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이는 누정건축의 가치가 건축물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역사적 장소성, 문화적 의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





남원 광한루

이러한 사례를 관덕정과 비교해 보면, 관덕정은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기능과 입지, 장소성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인 누정건축이 자연경관을 조망하거나 풍류와 휴식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것과 달리, 관덕정은 제주읍성의 중심부에 건립되어 군사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제주목 관아와 연계된 행정·군사적 중심 공간에 위치하여 제주의 정치·사회·문화적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관덕정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이 일대가 제주의 역사적 중심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탐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제주 원도심의 역사적 공간구조 속에서 관덕정의 입지와 장소적 의미가 중요한 요소이다. 관덕정은 단순히 1448년에 건립된 하나의 누정건축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제주의 역사적 장소성을 계승하고 상징하는 건축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관덕정은 조선시대의 군사·행정적 기능을 넘어 근현대 제주사의 주요 사건과도 함께하였다. 제주 사회의 변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관덕정과 그 전면 공간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활동의 무대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과 장소성은 관덕정이 지닌 중요한 문화유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덕정은 1959년 당시의 지정 체계에서 국보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정부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지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른 국가 문화재 지정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관덕정은 1963년 보물로 재분류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국가 문화재 지정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덕정의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덕정의 국보 승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겠으나 과거의 국보 지정 이력과 재분류 경위도 파악하는 한편, 현재의 국가유산 지정 기준에 따라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성, 희소성, 진정성 및 장소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사한 누정건축의 국보 승격 사례와 비교하여 관덕정이 지닌 건축적 특수성과 제주 역사 속에서의 위상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덕정은 제주 원도심의 역사적 중심 공간에 자리하면서 오랜 시간 제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대표적인 건축유산이다. 관덕정의 가치는 건축물 자체의 역사성과 건축적 특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제주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소적 상징성에 있다. 따라서 관덕정의 국보 승격은 단순히 제주에 국보를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사와 도시사 속에서 관덕정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제주 역사문화의 독자성과 보편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의 역사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건축을 낳으며, 건축은 다시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관덕정이 곧 제주의 역사이다.

주제 발표

觀德亭, 마음먹고 가는 곳에서 슬리퍼 신고 가는 곳으로

권 정 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장

2026년「관덕정,제주를 기억하는 광장-장소성과 재현으로 본 도시기억」
공동세미나

觀德亭, 마음먹고 가는 곳에서
슬리퍼 신고 가는 곳으로

▷제주원도심,관덕정 주변 활성화를 위한 건축 도시적 고민◁

2026.11.06(금)

탐라지예건축사사무소 권정우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를 버리고 '유산(Heritage) ' 으로

2024.05.17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달라지는 점

1.글로벌 기준에 맞춘 3대 유산 분류체계 (문화,무형,자연유산)
2.지역규제에서 상생과 개발 허용-→**패러다임 전환**
3.박제된 유물에서 '국민이 누리는 자산 ' 으로 **활용 진흥**
4.행정 및 일상 용어의 직관적 변경

- 인간/무형문화재 보유자-→무형유산 전승자
- 천연기념물(문화재)-→자연유산
- 국보 제1호 숭례문-→ 국보 숭례문
-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유산 상생지역(개념전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재'는 일찍이 서구에서 '기념물(monument)'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념물의 역사적 대상물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대상의 폭을 넓히면서 근대를 통해 '문화재(文化財)'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다.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문화재청,2007>

문화재 보존-→문화재 활용-→경제적 효용,지역자원
새로운 가치창출(문화향유 기회 증대)

창조적인 과감한 활용은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를 생활문화유산으로 다시 소생시켜
지역사회의 생명수 역할로 파생



2019.05.25 제주북초 대한독립을 외치다.교육을 통한 활용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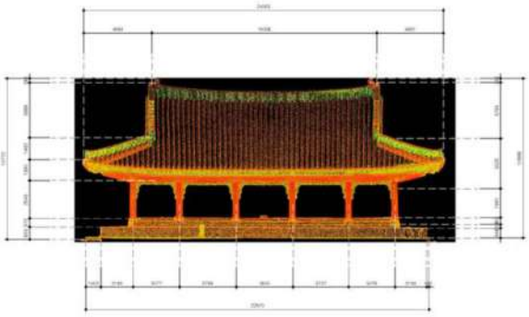
미국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가지 원칙 제시

1)상호 협력하라 (collaborate)
2)지역사회와 관광에 적합한 자원을 발굴하라 (Find the first between a community and tourism.
3)유적지와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라 (Make sites and programs come alive)
4)관광 상품의 질과 문화재의 **진정성**에 중점을 두어라 (Focus an quality and authenticity)
5)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라 (Preserve and protect resources)

오늘날 우리에게 제주원도심 관덕정,목관아의 진정성은 무엇 일까요?

"담장을 허물고, 일상을 채우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다"

격리된 문화재(Heritage)를 도시의 일상적 **공공공간(Public Space)**으로 재정의하고,
보행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도심 전체의 경제적·문화적 스핀오프(Spin-off)
효과를 창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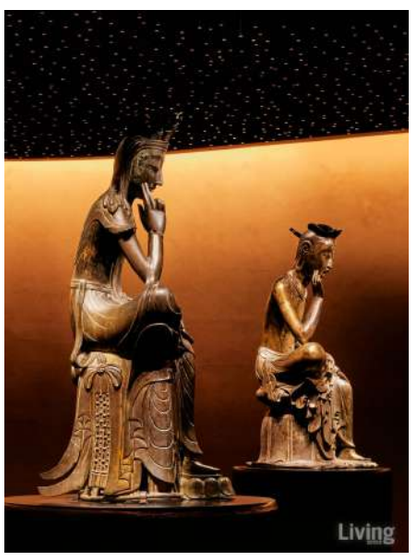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 설계에서 **'스핀오프(Spin-off) 효과'**는 하나의 핵심 **문화 자산이나 랜드마크가 활성화** 되었을 때, 그 활력이 주변의 낙후된 골목, 전통시장, 상업 지구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원도심 전체를 살아나게 만드는 파급 효과를 의미합니다



[휴(休), 무형유산] – 뉴미디어전 - 이음잇다

이음을 위한 공유는 박물관 유리장 속에 머물러 있던 국가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해방시켜, 동시대 대중이 감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미디어아트 전시입니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의 고정밀 3D 에셋을 활용해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1300년의 역사를 현대적 미학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시는 전통 공예 '다회(多會)'에서 착안한 '이음의 선'을 콘셉트로 실과 빛이 교차하며 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관람객은 압도적 스케일로 구현된 석굴암 내부와 무용수의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장면을 통해 유형과 무형유산이 하나 되는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7m 높이의 대형 스크린과 32대의 4K 프로젝터, 아나몰픽 기법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입체적 역사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를 통해 K-Heritage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이음을 위한 공유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유의 방] 사유의 방 조성, 그 여정의 끝



치유와 명상의 여정
반가사유상만을 위한
'사유의 방'

사유의 방은 국립중앙박물관 최초로 건축가 최욱(58) 원오원 아키텍츠 대표에게 협업을 제안해 만들어졌습니다.
오감(五感)을 존중하는 공간을 선보여 왔습니다.사유의 방도 그 맥락에 있습니다. 본래 전시실 크기는 현재의 절반 정도였는데, 건축가는 두 불상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박물관과 협의해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마치 소극장으로 진입하듯이 들고 나는 길에 어둠을 통과하는 골목을 만들었습니다. [출처:중앙일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

현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쇠퇴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위적인 계획과 공간이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 항만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의 발전과 주거 및 산업공간의 발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성장과 쇠퇴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와 이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이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 발전배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자원과 근대산업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설정은 주요한 이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도시인 안동, 군산 등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도시활성화 전략설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등한시되었던 기존의 역사문화자산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가꾸어나가는 것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명소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연계분야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국토연구원 이범현,김유란>



나오시마 프로젝트 소개

우리 도시에 부족한 것은?

나오시마 프로젝트 배치도







<그림 1> 나오시마 프로젝트 배치도 출처: 구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지원
-베네세그룹(일본 교육,실버기업)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은?

나오시마 빈집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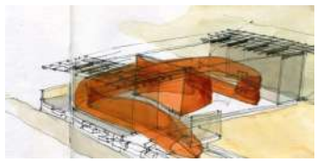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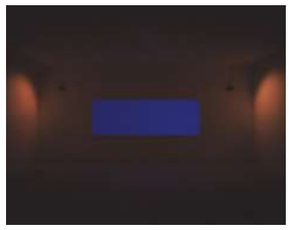



거점 이름	본래의 용도 (자산 유형)	참여 예술가 / 건축가	핵심 관람 포인트
카도야	200년 된 에도 시대 고택	미야지마 타츠오	물속에서 깜빡이는 주민들의 시간 (LED)
미나미데라	옛 사찰 터 (신축 목조건물)	제임스 터렐 / 안도 타다오	암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빛의 스크린
고오 신사	마을의 전통 신사	스기모토 히로시	천상과 지하를 잇는 정교한 유리 계단
이시바시	메이지 시대 제염업 가옥	센주 히로시	고택의 다다미방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수묵 폭포
고린자	옛 주민들의 바둑 사랑방	스다 요시히로	실제 동백꽃과 똑 닮은 정교한 나무 조각
하이샤	옛 치과의원 겸 주거지	오오타케 신로	집 내부에 우뚝 솟은 자유의 여신상과 콜라주

반나절 정도 동네 도보투어 가능

MINAMIDERA



이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적·철학적 반전을 줍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시각적 공해와 밝은 인공 조명에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리셋하고, 아주 미세한 빛을 감지하는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감각을 깨워내는 명상적 깊이를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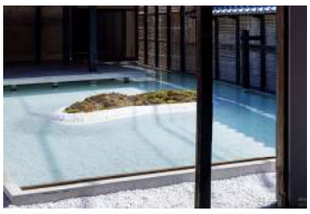
안도 타다오+제임스 테렐 건축과 설치작품

The Naosima Plan
Hiroshi Sambuich-"The Water"











삼부이치는 바람, 물, 태양을 '움직이는 재료'라고 부르며, 2011년부터 나오시마에서 이러한 재료의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한 '나오시마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나오시마 계획 '물'"에서는 지하수 동맥에서 나온 풍부한 물이 채워진 수영장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실험해온 '공기 릴레이 레이스'에 순수한 '물'을 더함으로써, 삼부이치는 방문객들이 온몸을 통해 혼무라의 지적 이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사진 Iwan.com

사진 및 설명 The Naoshima Plan "The Water" | Art | Benesse Art Site Naoshima

나오시마 빈집 프로젝트













거점 이름	본래의 용도 (자산 유형)	참여 예술가 / 건축가	핵심 관람 포인트
카도야	200년 된 에도 시대 고택	미야지마 타츠오	몸속에서 깜빡이는 주민들의 시간 (LED)
미나미데라	옛 사찰 터 (신축 목조건물)	제임스 터렐 / 안도 타다오	암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빛의 스크린
고오 신사	마을의 전통 신사	스기모토 히로시	천상과 지하를 잇는 정교한 유리 계단
이시바시	메이지 시대 제염업 가옥	센주 히로시	고택의 다다미방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수묵 폭포
고칸자	옛 주민들의 바둑 사랑방	스다 요시히로	실제 동백꽃과 똑 닮은 정교한 나무 조각
하이샤	옛 치과의원 겸 주거지	오오타케 신로	집 내부에 우뚝 솟은 자유의 여신상과 콜라주

반나절 정도 동네 도보투어 가능

국립박물관 굿즈 브랜드, '뮷즈(MU:DS)'

가 이제는 전통 굿즈를 넘어 하나의 K-트렌드가 됐습니다. 박물관 굿즈에 줄을 서고, 품절 소식에 아쉬워하고, 여행 코스에 국중박 숍을 넣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처음으로 **연간 방문객 650만 명**을 돌파했고 **뮷즈 매출도 400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뮷즈는 국중박과 소속 지역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 브랜드인데요.





(좌) 단청 기계식 유선 키보드 (우) 약사여래 (약사여래의 모습을 한 친환경 소재의 찜질팩)



매출액 430억 달성

제주원도심 '원즈'는?

관광상품 공모전 수상작









머들크레용 제주시 업체

팔기보다 파는 곳과 제작할 곳을 제주목관아에서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팔렸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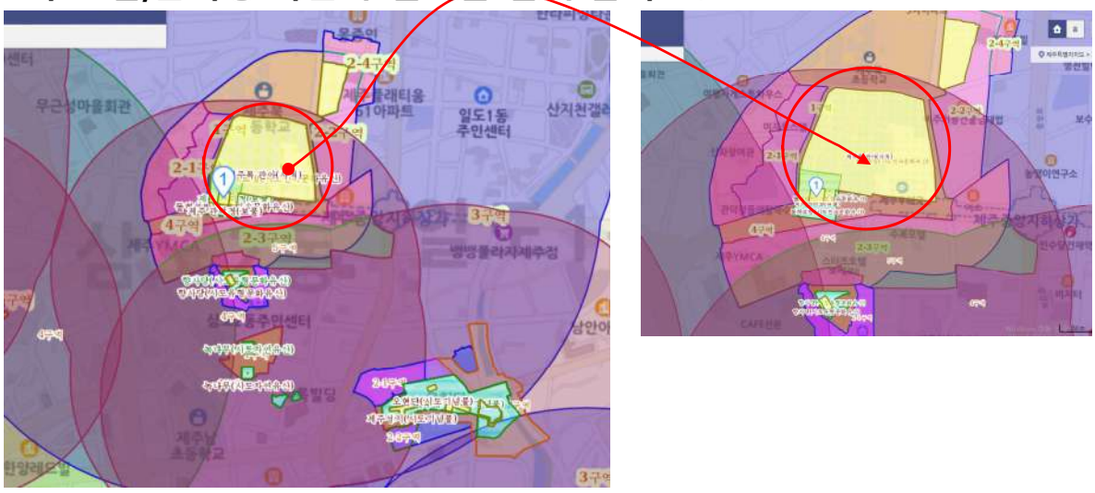
자 그럼,관덕정 목관아 일대를 살펴 볼까요?





제주공간정보포탈-공유재산 표기

자 그럼,관덕정 목관아 일대를 살펴 볼까요?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지정유산표기



가로200m X 세로148m







중앙로 지하상가 도면

관덕정 목관아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을까요?







혜화동 한옥 동사무소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활성화 방안







100주년 기념관 기록물



매해 학생들이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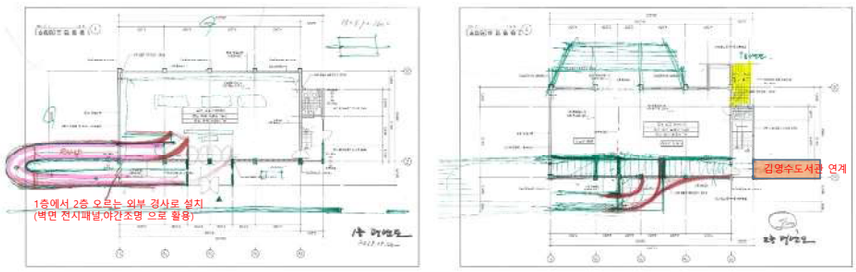
제주북초 100주년 기념관 활용방안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100주년 기념관 내부 정비후 1,2층 통합운영 기획후 일반 시민들에게 열고 동네 역사문화 해설사 교육을 통해 전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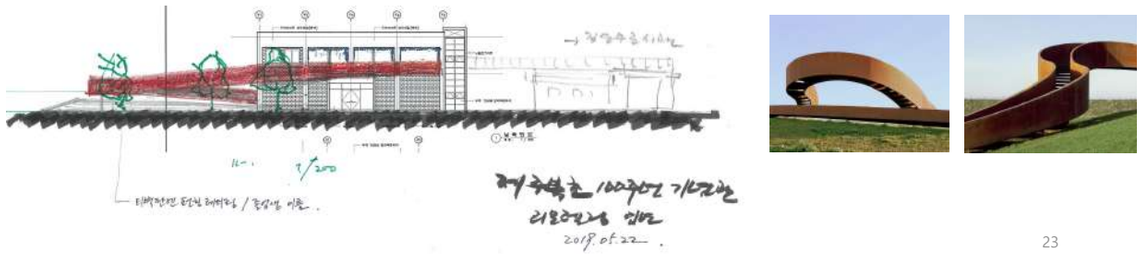
-김영수도서관과 연계하여 원도심 답사코스 활용하고 북초 내 제작되는 동화책 콘텐츠 제작, 전시 판매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

북초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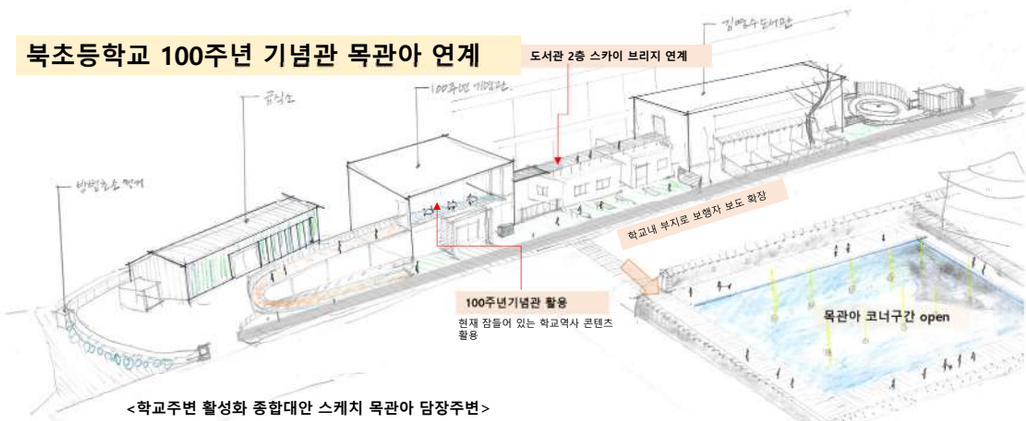


<학교주변 활성화 종합대안 100주년 기념관 스케치>



23

북초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목관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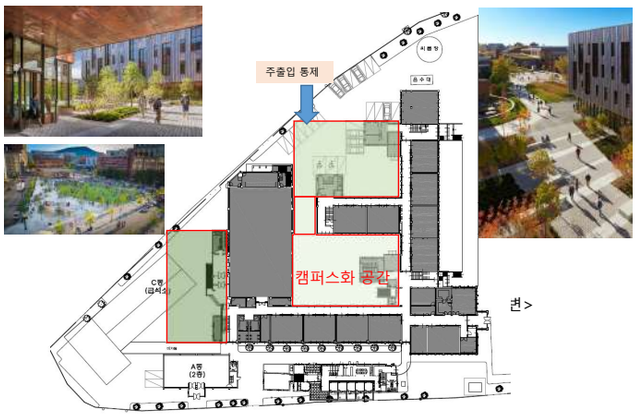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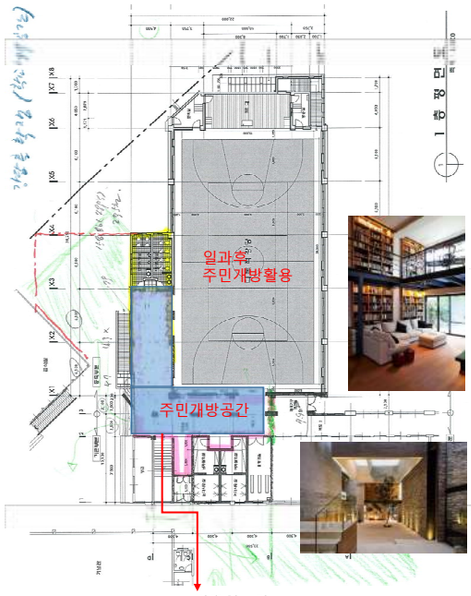
<학교주변 활성화 종합대안 스케치 목관아 담장주변>



24

학교주변 활성화 종합대안





학교내 공간 캠퍼스화 전략구상

-학교 울타리는 결국 잠재적 불특정 외부인의 학교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보상 일 뿐이다.
현재 학교내 유휴 부지를 활용, 공간개선을 추구 한다면 특성화된 원도심 학교를 만들수 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사례에 대한 공간개선으로 마을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특성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다목적 강당과 홀 또한 시크릿을 제어하면 일과후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일수 있고 원도심 주민에게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 활성화 종합대안









야간경관 조명 연출 사례

학교정문 구간 보행자 도로 확장

-학교 정문구간의 학교 부지내로 보행자 통로를 확보 하고 바닥재질 담장 특성화 계획을 구상한다.
-정문 동측 영주관 객사터까지 보행자 통로를 연장 주변환경 개선하고 통학로 주변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특화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목 관아 담장길 활성화 방안



현재 문제점

-차량 이면주차로 보행자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제기됨.
-도로상에 전신주 혼재
-목 관아 전통 담장길의 정취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목관아 담장 곁에 설치 됨.
-상가 및 주택의 노후화로 활성화 떨어짐.
-목 관아 부지 담장경계로 도시의 한 부분(동,서방향) 통로길 단절됨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RISK로 작용)
-일면 상가배치 및 1층 단독주택들로 가로 조성되어 활력도 떨어짐

활성화 전략

-현재 쇠퇴한 가로면 활성화 유입 시설 조성
-보행자 동선유도 및 가로환경개선
-기존 원도심의 자원인 공간과 콘텐츠를 발굴 자원임을 인식하고 최대한 활용
(목관아 회랑,관리사무소,노인회건물)----<킬러콘텐츠 발굴>
-기존 전통 분위기 컨셉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 특유의 가로 분위기 조성.
-도시재생 상상마당 조성후 가로 활성화 연계방안 마련
-기존의 바닥포장 바꾸기식 단순 환경개선 사업을 지양하고 원도심 지역의 분위기와 시민,주변상가와 상생하는 전략을 구상한다.

제주목 관아 담장길 활성화 방안



관덕로 3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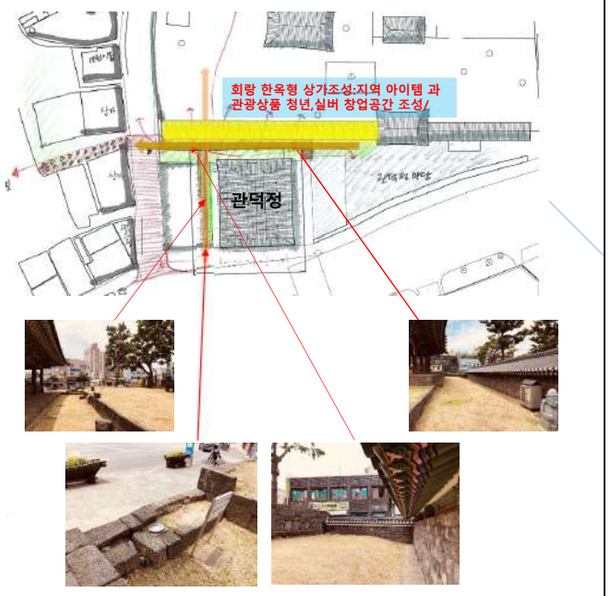
-목 관아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환경개선 필요.
-서측 공영주차장 묵은성 골목길과 연계한 보행자 통로 및 골목길 콘텐츠 확보.
-동양여관 골목길과 연계한 보행자용 목 관아 출입문 설치 목관아내 공용화장실 연계 검토
-일면 상가로 상가 활력도 떨어짐.
-학교 통학로 유치원 승하차등 보행자 환경이 열악함.(보차분리 방법,전신주 지중화 필요)





목 관아 담장길 활성화 방안(관덕로3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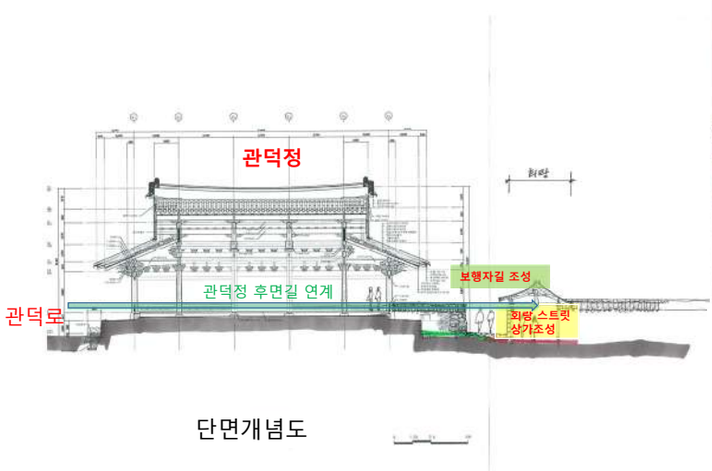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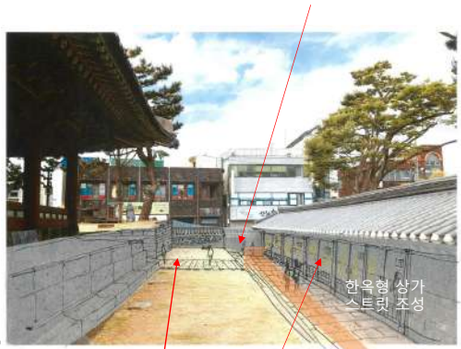
29

목 관아 담장길 활성화 방안(관덕로3길)

관덕로3길 연계



단면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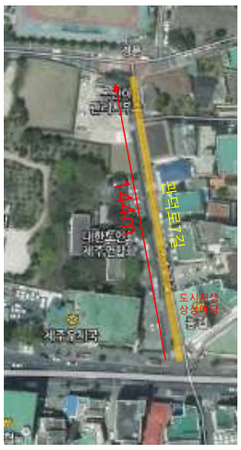
예시 이미지



관덕정 후면길 연결

30

제주목 관아 담장길 활성화 방안(관덕로7길)



관덕로 7길 현황

-목 관아 주차장 활용도 떨어짐,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환경개선 필요.
-대한노인협회 위치,목 관아 전통담장 분위기를 살리고 있지 못함,목관아 내부로 산책길 연계동선 필요.
-목관아 관리사무소 활용도 떨어짐 (옥상 목관아 전망대 활용 및 프로그램 개선),
 주변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외관.(리모델링 후 건물외관 개선 필요 Ex목관아 박물관,원도심 근대박물관 활용)
-학교 통학로 보행자 환경이 열악함.(보차분리 방법,전신주 지중화 필요)
-동측 중앙로 상권과 연계하는 및 도로변 배후상권이 약함.








제주목 관아 담장길 활성화 방안(관덕로7길)

목관아 동측 보행자길 산책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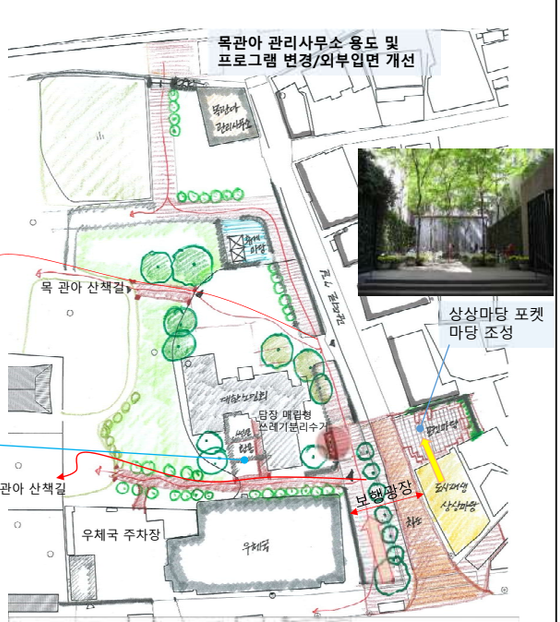



노인회관 썬큰 연계 활용



역발상,목관아 담장 내부로 보행자길 조성

목관아 관리사무소 용도 및 프로그램 변경/외부입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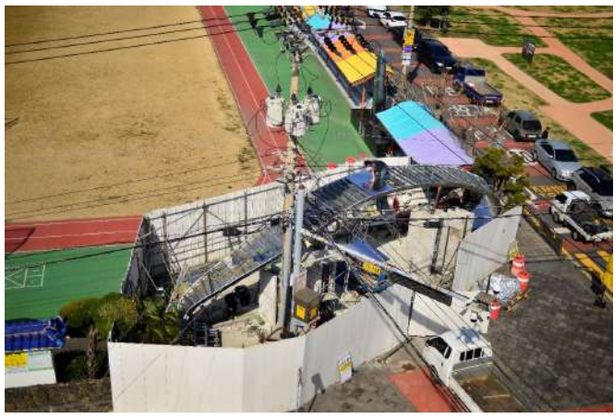


보행자광장/학교통학로

감사합니다.



제주북초등학교 정문 공사전(2019.05)



제주북초등학교 정문 공사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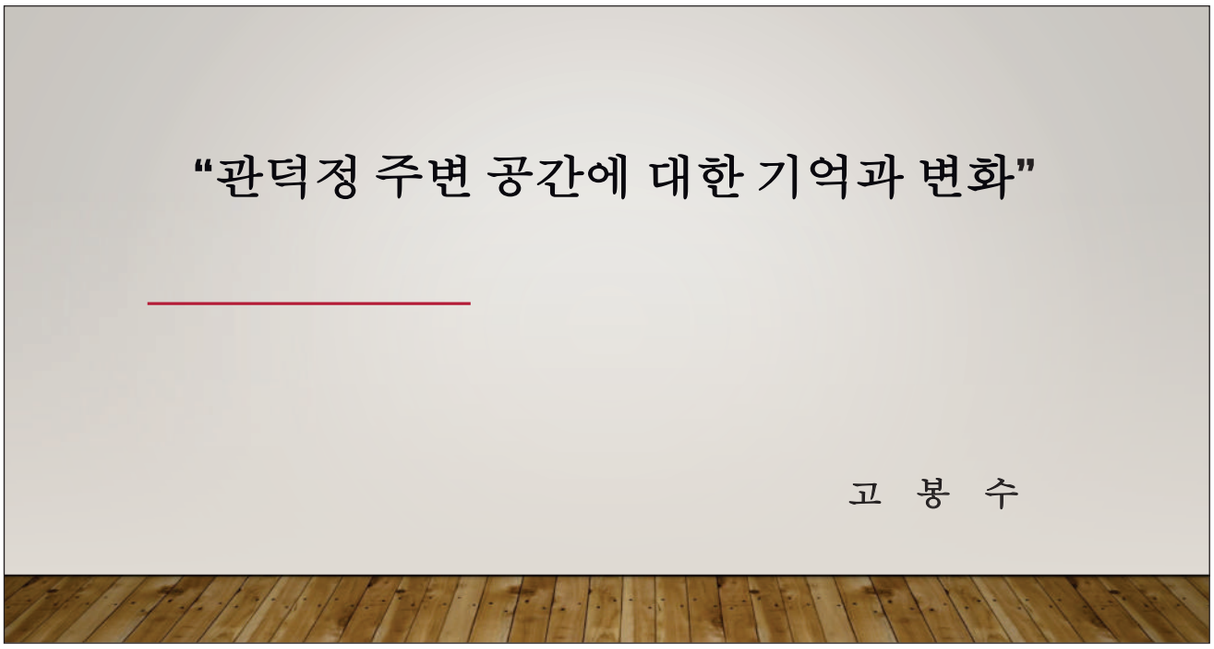
종합 토론

| 좌 장 |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 론 | 고 봉 수 제주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고 상 헌 제주CBS 기자
고 재 원 제주자연돌봄센터장
고 병 정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변 지 철 연합뉴스 기자
하 정 아 문화기획가, 축제 감독

관덕정 주변 공간에 대한 기억과 변화

고 봉 수
제주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관덕정 변천(미군정시기-1970년대(1961-1999)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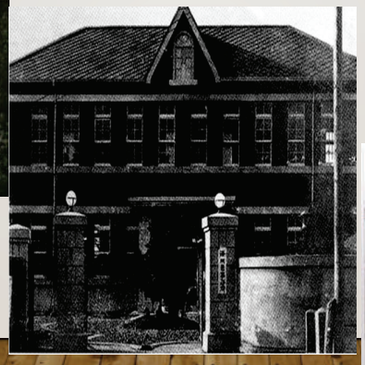






주사/사창 - 면사무소(1913-1931)/읍사무소(1932-1945) - 시청(1959-1980)







구 제주시청(2012년12월말 해체) -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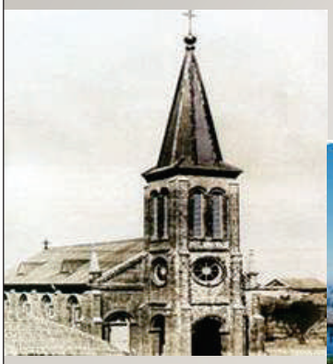
한짓골(1970년대와 현재) -남양문화방송국







제주도 최초의 천주교 중앙성당



1930년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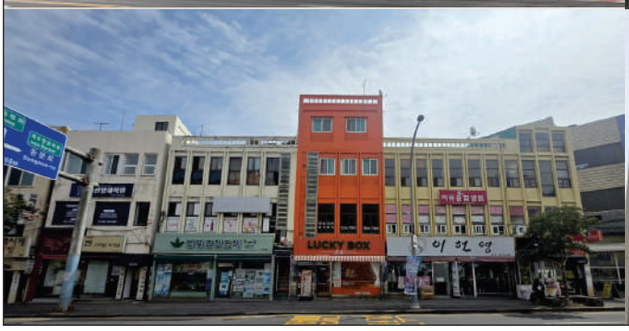
1995년



공동벽체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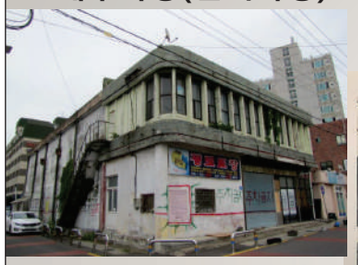








제주시 영화관(칠성로는 서울의 명동+충무로)
제주극장(현대극장) - 중앙극장(아세아극장) - 제일극장 - 동양극장 - 코리아극장







작가 미상, 칠성통 제일극장, 1972년



재주新보 1991012 종합

역사 품은 근대 건축물의 위기

일제강점기 건축된 동양·탐라여관…당대 스타·대통령 찾던 호텔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상업시설 근대건축물인 동양여관과 탐라여관이 최근 방치되면서 그 뒤안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등록을 통해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삼도 2동에 있는 동양여관과 탐라여관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근대건축물로 한때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노식, 신영균 등 당대의 영화 스타들이 투숙한 고급 호텔이었다.

하지만 현재 여인숙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양여관의 경우 내부는 건축 당시 사용한 일본 목

도로 내며 건물 유실되고
행정 무관심 속 원형 잃어
"문화재 등록" 평가 시급

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원래 모습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 있지만 외부는 원형 그 위형을 잃어가고 있다.

16년 전부터 동양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75·여)씨는 "지난해 여관 앞으로 소방 도로를 내야 한다고 해서 입구를 허물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 외부도 많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동양여관 전경.

지금은 묵을 만한 탐라여관의 경우에도 확인 결과 같은 기간 소방 도로를 내면서 건물 일부가 잘려 나간 현관문이 덩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식 제주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제주에 남은 근대건축물 대부분이 전쟁 시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동양여관과 탐라여관은 근현대 도심 생활사를 간직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주도 내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도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 역사 자료도 전혀 없는 실정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센터장은 "해당 건축물의에도 모내 근대건축물의 경우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행정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현기자
kossang@jeju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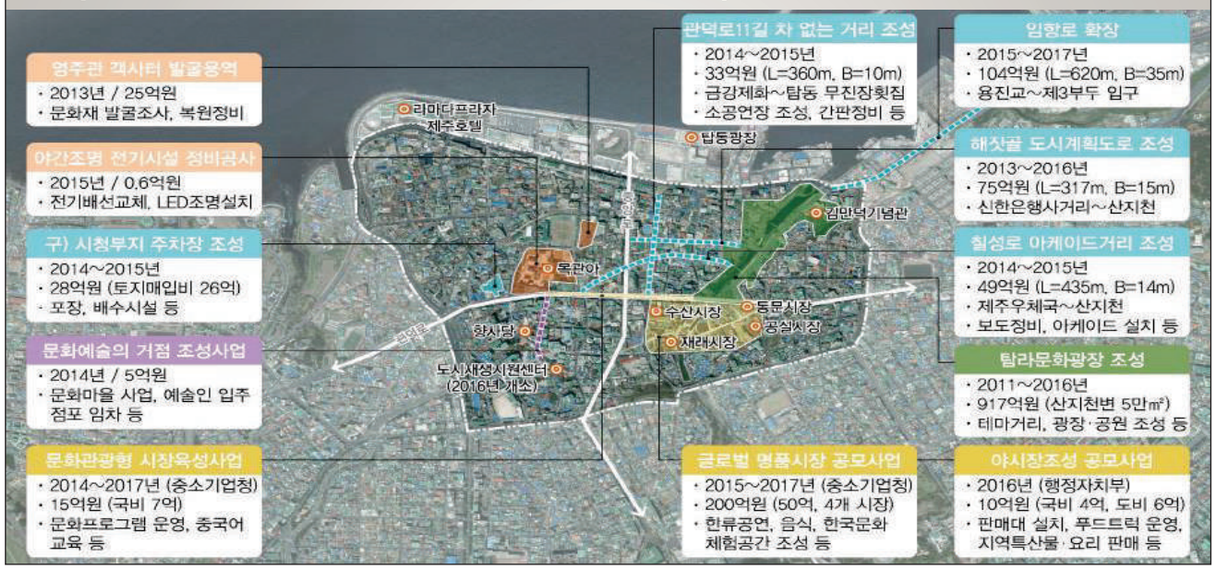
원도심 공동화 현상

- 도시의 팽창
- 관공서의 이전
- 택지개발
- 주거 공간과 상업공간의 분리

원도심 살리기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그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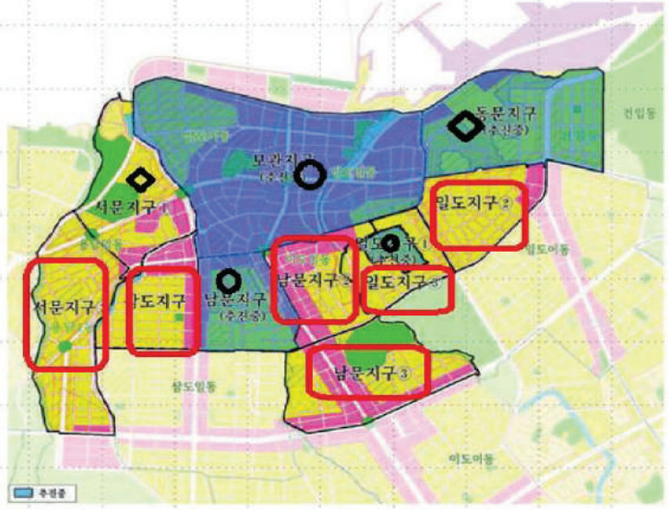
-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
- 탐라문화광장, 칠성로 아케이드거리 조성 등
- 주로 토목사업에 치중

원도심 살리기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 (2013년 ~ 2017년까지 1,461.6억원) 투입 그 효과는?



원도심 살리기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 (2017년 ~ 2026년 1,621.6억원 투입 예정)

● 제주시 원도심 동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총 6곳(사업완료 2곳, 추진 중 4곳)

(단위 :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62,167 (90,138)	'16~'26		
제주시 원도지구 (건입, 삼도2, 일도1, 이도1)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15년 선정)	제주동학교 김영수도서관 청년혁신창업거점 W360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	완료
제주시 산산여부 (일도2)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17년 선정)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삼도2)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3 (19년 선정)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정비 노후주택 정비	추진중
제주시 건입동 (건입)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3 (19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제주시 중앙일동 (중앙1)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21년 선정)	중앙 중앙공원 조성 마을복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캣갈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일도2)	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22년 선정)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제주목 관아 적극적 활용방안 - 사적공원화

- 원도심의 장점이 곧 단점인 현실

- 2020년 8월 31일 시민 689명 제주목 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무료개방 주민청원
  - 2020년 9월 진해루 대문 개방
  - 2022년 5월과 10월 2개월 야간 무료 개장
  - 2023년 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 무료 개장 중

사적 운영 사례 비교

구분	제주목 관아	원주 강원감영	대구 경상감영공원	서울 효창공원	서울 탑골공원	충주 관아공원	대전 우암사적공원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청북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문화재 지정/등록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1993.3.31 지정)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2002.3.9 지정)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大邱 慶尙監營址) (2017.4.26 지정)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서울 孝昌公園) (1989.6.8 지정)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1991.10.25 지정)		
담장경계	있음	있음	없음	있음. 공원 출입구 여러 곳임.	있음. 동서남북에 문 있음. 일부 구간은 투시형 담장 설치.	있음(낮은 담장)	있음.
담장(구역) 내 개별 문화재	없음	도유형문화재 제3호 포정루 및 선화당	선화당(유형문화재 제1호) 징청각(유형문화재 제2호)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철골+유리 보호각) 보물 제3호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시도유형문화재 제73호 탑골공원 팔각정	청녕헌 지방문화재 제66호 제금당 지방문화재 제67호 충주축성 사적비 지방문화재 제68호 보호수(수령 510년)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4호 남간정사
담장(구역) 밖 개별 문화재	보물 제322호 관덕정(觀德亭)	공원 관련 없음	공원 관련 없음	공원 관련 없음	공원 관련 없음	공원 관련 없음	
개방시간	연중무휴 09:00~18:00(17:30에 매표마감)	연중무휴 09:00~22:00	제한 없음	1. 공원은 24시간 개방 2. 공원 내 별도 담장이 있는 의열사, 삼의사 묘역과 백범 김구 묘소는 10:00-17:00 개방	09:00-18:00	제한 없음	1. 공원 전체 연중 무휴. 하절기(3-10월) 05:00-21:00 / 동절기(11-2월) 06:00-20:00 2. 공원 내 별도 담장이 구획된 문화재 남간정사 10:00-17:00
입장료	유료.Adults 1.500 won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기타		감영 내 내아, 유료 한복체험 (원주시 보조금 지원사업) 여행주간 원주시 주최 토요일 버스킹 공연					


SKT
오후 11:34
국가사적 '제주목관아' 시민공원 활용 논의 활발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도심 활성화 시민협의체가 이달 초 낸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조성해 ...
8시간전 · 한겨레 · 다음뉴스
"제주목 관아를 시민공원으로"
제380호 제주목 관아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원도심 주민들이 국가 사적인 제주목 관아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8시간전 · 국민일보 · 다음뉴스
제주목관아 '시민공원'으로 개방해야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도심 활성화 시민협의체가 이달 초 접수한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
2020.9.21. · 제주일보
"제주도는 '제주목 관아 활성화 대책' 적극 모색해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9월 21일 열린 제387회 3차 임시회를 통해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
.9.21. · 미디어제주


사라지는 도시의 흔적들..., 아쉬움!

사라질지도 모를 흔적들...,



새로운 변화의 조짐 / 살아남기
(명동과 종로 3가에서 답 찾기)

- **상권 생태계의 변화 과정**

- **청년 창업의 기회 요소**
  -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 스토리가 있는 공간(Newtro)

- **뚜벅이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장소**
  - 잘 갖춰진 도시기반 / 공항, 항만과의 접근성 용이

새로운 변화의 조짐(한짓골)






















Alpha
남아있는 것들.....

언론이 기록한 관덕정 주변 원도심의 변화

고 상 현
제주CBS 기자

건축을 영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시간 속에 공간을 펼쳐놓는 예술이라면, 건축은 공간 속에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영화가 시대를 담아낸다면, 건축은 시대를 살아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는 단순히 건축 당시의 양식이나 기술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사회적 변화와 사건을 겪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를 통해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재한 〈사라지는 근대 기억들〉은 오래된 건축물이 품고 있는 시대와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한 보도물입니다. 보도에서 다룬 건축물 상당수가 제주시 관덕정 주변에 집중됐습니다. 관덕정 주변 원도심은 제주의 근현대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남아 있는 건물과 사라진 건물의 기억을 따라 관덕정 주변 원도심이 걸어온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오늘날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관덕정 주변은 한때 제주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제주목관아가 자리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도청과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했습니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근 칠성로와 무근성 일대에는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여관과 요정, 각종 상점이 들어섰고 제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번영의 흔적을 간직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관덕정 바로 옆에 있는 '동양여관'입니다. 1938년에 지어진 동양여관은 제주의 첫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식과 한식이 혼합된 절충식 목조건물로, 욕조가 있는 화장실을 갖춘 특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평범한 시설이지만 당시에는 보기 드문 고급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대 관덕정 광장에서 연설한 뒤 이곳에 묵기도 했습니다. 동양여관 바로 옆에 있던 탐라여관 역시 제주의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1970년대 박노식과 신영균 등 당대 유명 영화배우들이 제주를 찾을 때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유명 인사들의 숙소였던 두 여관은 당시 관덕정 주변이 얼마나 활기찬 곳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취재 당시 동양여관의 풍경은 과거와 사뭇 달랐습니다. 출입문에는 '월셋방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고, 어두운 복도에는 낡은 나무 바닥과 벽만이 오랜 세

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3개 객실 중 사람이 사는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과거 고급 호텔이었던 공간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월셋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주의 번화가가 쇠퇴하는 동안 동양여관 역시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셈입니다. 관덕정 인근 무근성 일대에 남아 있던 일식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리와 상인 등이 거주하던 이곳에는 일본식과 제주 전통 건축양식이 혼합된 주택들이 들어섰습니다. 무근성에서 평생 살아온 주민들은 과거 이 일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오래된 집들이 빼곡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상당수 일식주택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일부 건축물은 카페와 책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래된 공간을 허물지 않고도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덕정 주변에는 제주의 문화와 정치사를 보여주는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 최초의 현대식 문화공간인 '현대극장'입니다. 현대극장은 1943년 '조일구락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관객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마니를 깔고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유랑극단의 공연과 변사의 설명이 곁들여진 무성영화가 상영됐습니다. 1948년에는 475석 규모로 시설을 정비해 '제주극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1970년대 들어 현대극장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극장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제주 사회의 이념 대립과 4·3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실내공간이 많지 않았던 탓에 좌우익 단체들의 결성식과 정치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1947년 4·3의 도화선이 된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한 민주주의민족전선 제주도위원회 결성대회도 열렸습니다. 같은 해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 역시 이곳에서 창립됐습니다.

현대극장은 도민들의 추억이 깃든 문화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취재 당시 만났던 주민들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극장 화장실 문으로 몰래 들어가 '도둑 영화'를 보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존 웨인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서부영화를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던 기억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TV 보급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극장은 1987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상점과 창고로 사용되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철거됐습니다. 제주 현대사의 굴곡과 제주도민들의 추억을 함께 간직했던 공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관덕정 바로 옆에 있던 옛 제주시청사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된 이후인 1959년 준공된 옛 제주시청사는 제주 최초의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이

었습니다. 중앙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전형적인 근대건축 양식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옛 제주시청사 주변은 공무원과 민원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옛 제주시청사에서 급사로 일했던 주민은 취재 당시 넓은 마당과 기와지붕, 계단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던 커다란 유리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기억이 단순한 외관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보낸 시간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980년 제주시청이 지금의 청사로 이전하면서 옛 건물은 점차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됐고, 결국 2012년 12월 철거됐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철거 전부터 건축물의 보존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사라진 뒤에야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은 원도심의 흥망성쇠를 함께했습니다. 한때 유명 인사들이 머물던 고급 호텔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월셋방으로 바뀌었고, 도민들의 추억이 깃든 극장은 사라졌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들로 북적이던 시청 자리에는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은 것은 건축물의 화려한 외관보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건물은 사라지거나 모습을 바꿨지만, 그곳에 얽힌 기억은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관덕정 주변 원도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가 낡은 건물을 허물고 거리를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곳에 쌓인 기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삶과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옛 건축물이 지닌 역사와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도심만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는 마지막 장면이 있지만, 원도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 제주의 중심지로 번성한 관덕정 주변에도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지난 시대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남겨진 기억 위에 새로운 삶을 더하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타도시 역사공간 활용사례를 통한 관덕정의 시사점

- 국보급 관아 누정(樓亭)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고 재 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센터장

조선시대에 들어 제주읍성과 목관아는 제주의 행정, 정치, 군사,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보물로 지정된 관덕정은 남아 있는 제주도 유일의 조선시대 관아 건축물이다. 관덕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장, 활쏘기 시험장, 군사 검열과 진상마 점검 등 제주역사를 바라보는 곳이었다. 그리고 항쟁의 중심지로 근현대에 이르러 관덕정 광장은 오일장 뿐만 아니라 4·3의 아픔의 역사가 함께한 곳이기도 하다. 관덕정은 과거 탐라의 궁궐터의 월대 위에 세워졌다고도 한다. 적어도 탐라의 정체성을 계승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축물 내부에 관덕정의 위상을 보여주는 〈耽羅形勝〉,〈湖南第一亭〉 현판(扁額)이 걸려 있다.

본 토론에서는 타 도시의 대표적인 국보·보물급 누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덕정이 역사 공간으로 나아가야 할 시사점과 활용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남원 광한루(국보, 2026년)

고전소설『춘향전』의 무대이자 조선시대 대표 관아 정원으로, '남원 국가유산야행' 기간 동안 광한루 주변에서 오작교 건너기, 월궁천등 날리기, 판타지 공연 등 서사 중심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먹거리장터와 월리단길 프리마켓을 연계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고 있다.

- 밀양 영남루(국보, 2023년)

밀양강 절벽 위 '영남제일루'로 불리는 관아 누각으로, '영남루 별빛정원'을 운영하고, 밀양 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수려한 야경 속에서 응천아리랑 공연과 찻사발 다도, 한복 체험 등을 제공하며 강변 인프라와 결합한 체류형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

- 정읍 피향정(보물, 1961년)

연꽃 연못과 어우러진 '호남제일정'으로, '피향정 문화축제'는 정읍 국가유산 야행을 통해 태인동헌·향교 등과 연계하여 취타대 행렬, 현감행자, 연잎차 다도 예절, 전통주 시연, 짚풀공예, 각종 전시회 등 지역 고유의 예향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 삼척 죽서루(국보, 2023년)

오십천 절벽 위에 '관동제일루'로 알려진 관아 건축물인 죽서루가 자리하고, 매년 가을 '삼척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야경 조성, 도호부사 행차 및 이사부 장군 승리의 날 퍼레이드, 전통 다도 체험 등을 원도심 상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화재 야행이 골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제천 청풍 한벽루(보물, 1971년)

고려 충숙왕 4년(1317) 청풍현의 군 승격을 기념해 건립된 관아 부속 누각으로,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 문화재들을 1985년 청풍문화재단지로 이전·복원되었다. 한벽루는 밀양 영남루, 남원 광한루와 함께 본채 옆에 익랑이 딸린 조선시대 누각의 대표적 예로, 남한강의 수려한 풍광 속에서 동헌(금병헌), 객사(응청각), 향교 등과 연계되어 조선시대 관아 공간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야외 역사박물관이자 관광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변 청풍랜드, 케이블카, 수상 아트홀과 연계해 활용되고 있다.

제주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관덕정은 목관아지와 함께 제주 역사·문화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선진적인 문화유산 활용 사례에 비해 야간 관광, 주민 참여, 상권 연계 측면에서 더 과감한 도약이 요구된다.

● 야간 개장 및 체류형 콘텐츠(야행 프로그램)의 상시화·대형화

육지부 사례처럼 관덕정 및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 추진되는 '펠롱펠롱빛 모드락' '귤림야행' 등 야간 개장(18:00~21:00)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아트와 야간 조명을 확충한 시그니처 공연을 비롯한 야간 축제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 원도심 상권 및 지역 경제와의 유기적 상생 구조 구축

내륙 도시들은 축제 공간과 인근 먹거리 장터·프리마켓을 동선으로 긴밀히 연결하여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관덕정 서측 공영주차장 및 인근 원도심 상권인 야시장 및 골목 상생 마켓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 주민 기억의 아카이브와 학제 간 융합 활용

건축 기록의 공공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억하는 관덕정의 변천 과정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AI와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관덕정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 언론 및 지역 사회의 공론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지역 언론이 지속적으로 조명해온 원도심 상권의 변화 양상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과 언론, 역사학자 및 활용전문가, 지역 상인과 주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타 도시의 국보·보물급 누정 활용 사례는 문화유산이 지닌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야간 관광 콘텐츠, 지역민의 삶, 그리고 상권 인프라와 결합할 때 지역 사회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관덕정은 단순한 관람형 문화재의 틀을 벗어나, 타 도시의 성공적인 야행 및 상생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디지털 기술과 원도심 상권을 잇는 입체적 활용 방안을 집행할 때 비로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는 유일하게 국가유산인 국보가 없다. 관덕정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제주도에서 국가유산인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제주 문화유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제주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확립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비젼에 대한 가치에 기반을 둘 수 있다.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과 확장

고 병 정
제주한라대학교 AI융합학부 방송영상학과 조교수

■ 토론 요지

관덕정은 1448년 창건 이래 군사 훈련장이자 관아 앞 광장, 장터와 집회의 장소, 그리고 1901년과 1947년의 비극이 새겨진 현장으로서 여러 시간층의 기억을 품어 왔다. 본 토론은 AI와 메타버스를 '과거를 그럴듯하게 되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층을 드러내고 시민의 기억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인터페이스'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재현의 세 층위(기록-복원-확장), 재현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쟁점(근거의 투명성, 어려운 기억의 윤리, 법·제도, 지속가능성), 단계별 실행 방안과 협력 체계를 제안하고, 종합토론에서 함께 논의할 논점을 제기한다.

Ⅰ. 왜 지금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인가

관덕정(觀德亭)은 제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1448년(세종 30) 안무사 신숙청이 병사들의 훈련을 위해 세운 뒤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덕정의 의미는 건물에만 머물지 않는다. 관덕정 앞마당은 조선시대에는 활쏘기와 열병, 관민의 의례가 펼쳐지던 관아 앞 광장이었고, 근대 이후에는 장이 서고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이었다. 동시에 이곳은 1901년 신축년 제주민란(이재수의 난) 당시 천주교도들이 처형된 장소이며, 1947년 3·1절 기념대회 직후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 4·3의 도화선이 된 현장이고, 1949년에는 무장대 사령관의 시신이 내걸린 곳이기도 하다. 한 장소 위에 영광과 일상, 저항과 비극이 겹겹이 퇴적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은 언제나 '현재'의 모습만을 보여준다. 오늘 관덕정 앞에 선 시민과 관광객은 2003~2006년 해체·보수로 옛 모습을 되찾은 건물과 차량이 오가는 도로, 그리고 상가를 볼 뿐, 그 아래 쌓인 시간층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9년의 한 보도는 3·1절 발포사건의 현장임에도 관덕정 주변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상현, 2019).

디지털 재현이 관덕정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디지털 기술은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시간층을 현재의 풍경 위에 겹쳐 보여줄 수 있고, 흩어진 기억을 한 장소로 모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세미나의 화두가 '장소성과 재현'인 만큼 짚어 둘 점이 있다. 재현은 언제나 선택과 배제를 수반하는 의미화의 실천이다(Hall, 1997). 생성형 AI가 재현의 주체로 들어오는 순간, 그 선택은 사료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통계적 '그럴듯함'에 의해 이루어질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이 토론의 질문은 **"AI와 메타버스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누구와 함께 보여줄 것인가"**에 가깝다.

Ⅱ. 관덕정의 장소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덕정을 디지털로 재현하기에 앞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을 관덕정으로 볼 것인가'이다. 렐프(Relph, 1976)는 장소의 정체성을 물리적 환경,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 역시 건물의 형태만이 아니라 활동과 의미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3차원 스캔이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요소뿐이다. 광장에서 무엇이 행해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는 사료와 구술, 언론 기록을 통해서만 재구성될 수 있다.

관덕정은 '원형'을 하나의 시점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건축물이다. 1924년 일제강점기 보수 과정에서 긴 처마가 2척가량 잘려 나갔다가 2003~2006년 해체·보수를 통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이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다. 물리적 복원은 결국 하나의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디지털 재현은 특정 시점의 '정답'을 고르는 대신 변형과 회복의 이력을 시간축 위에 나란히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물리적 복원과 구별되는 디지털 재현 고유의 가능성이다.

관덕정 광장의 재구조화는 오래된 과제다. 2017년 추진된 관덕정 광장 복원 구상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둘러싼 주민·상인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던 데서 보듯(황경근, 2017), 물리적 재구조화는 비용과 합의의 문턱이 높다. 디지털 레이어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광장은 본래 비어 있음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해설판, 조형물, 대형 스크린과 같은 고정 시설을 더할수록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은 어수선해지고 광장의 '비움'은 잠식된다. 반면 위치 기반 증강현실(AR)이나 웹 기반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설치물을 최소화하면서도 방문자가 원할 때 원하는 깊이의 해석에 접근하도록 해 준다. **광장은 비워 두되 의미는 채우는 방식**, 즉 물리 공간과 디지털 레이어가 결합된 '피지털(phygital) 광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기록-복원-확장

AI와 메타버스의 활용은 흔히 '실감 콘텐츠 제작'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논의된다. 그러나 목적과 책임이 서로 다른 세 층위를 구분할 때, 무엇을 공공이 책임지고 무엇을 시민·창작자와 함께할지가 분명해진다.

〈표 1〉 관덕정 디지털 재현의 세 층위

구분	기록(Record)	복원(Reconstruct)	확장(Extend)
핵심 질문	지금 무엇이 있는가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을 함께 경험할 것인가
주요 기술	지상 라이다, 드론 사진측량, 역사건축정보모델(HBIM)	사료 기반 3D 모델링, AI 사진 복원·컬러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위치 기반 AR, 웹 디지털 트윈, 대화형 AI 해설, 야간 미디어 연출
산출물	측정 가능한 디지털 원본(기준 데이터)	근거 등급이 표기된 시대별 재현 모델	시민 참여형 서비스·교육·축제 콘텐츠
판단 기준	정확성	근거의 투명성	참여와 지속성
주된 책임	유산 관리 주체	연구기관·전문가 검증	지역 공동체·창작자·교육기관

첫째 층위는 현재의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일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기록하는 일이다. 지상 라이다(LiDAR)와 드론 사진측량으로 건물과 광장의 형상을 취득하고 이를 역사건축정보모델(HBIM)로 구조화하면, 부재 단위의 상태 이력과 수리 기록을 하나의 모델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 2007년 간행된 『관덕정 실측수리보고서』의 도면과 기록은 이 디지털 원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3D 정밀 스캔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덕정 데이터의 정비·공개 수준을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보완 기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 층위의 원칙은 단순하다. **기록 데이터는 해석이 개입하지 않은 기준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후의 모든 복원과 확장은 이 원본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층위는 사라진 시간층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관덕정은 이 점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의 순력을 기록한 『탐라순력도』에는 관덕정에서 열린 활쏘기 시사(試射)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제주목 관아는 이 화첩과 『탐라방영총람』 등을 근거로 2002년 복원되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의 사진과 해방 이후의 보도사진, 지역 신문·방송의 영상 아카이브를 더하면 조선 후기에서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별 재현의 근거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언론이 쌓아 온 기록은 공식 사료가 담지 못한 광장의 일상, 즉 장날의 풍경과 집회와 축제, 상권의 부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제주학과 언론학의 만남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AI는 이 층위에서 강력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도구다. 흑백 사진의 노이즈 제거

와 초해상도 복원, 여러 장의 사진에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신경 렌더링(NeRF)과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고문헌 판독과 번역 보조 등은 연구자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 준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사료가 비어 있는 곳을 그럴듯하게 채우는 데 능하다. 흑백 사진의 컬러화는 당시 색채에 대한 추정이며, 사진 몇 장에서 생성한 입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면을 학습 데이터로 메운 결과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처럼 유통되는 순간 디지털 재현은 기억을 돕는 대신 기억을 대체하고 왜곡한다. 그래서 복원 층위의 판단 기준은 **'사실감'이 아니라 '근거의 투명성'**이어야 한다(Ⅳ장에서 상술).

셋째 층위는 기록과 복원의 성과를 시민의 경험으로 넓히는 일이다. 토론자는 관덕정의 메타버스를 현장과 분리된 독립 가상세계로 구축하기보다, 현장과 연결된 '증강된 광장'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야간 행사·교육과의 연계:** 세계유산본부가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일원에서 운영해 온 야간 개장 '귤림야행'처럼 이미 사람이 모이는 프로그램에 디지털 레이어를 결합하면 별도의 집객 비용 없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과 청소년이 직접 관덕정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재현의 주체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의 디지털 문화유산 인력을 기르는 길이다.

Ⅳ. 디지털 재현이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쟁점

문화유산 가상 재현 분야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원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런던 헌장(The London Charter, 2009)」은 컴퓨터 기반 시각화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해석 과정을 거쳤는지를 밝히는 지적 투명성과 그 과정의 기록, 즉 '파라데이터(paradata)'를 요구하며, ICOMOS가 채택한 「세비야 원칙(The Seville Principles)」 역시 가상 재현의 과학적 투명성과 진정성을 강조한다.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에도 이를 적용하여, 장면을 이루는 각 요소에 근거 등급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표 2〉 근거 등급 표기 방안(안)

등급	근거 수준	예시	화면 표기
A	실측·현존	현재의 관덕정 건물, 광장의 지형과 건물 배치	기본 표현
B	사료 직접 근거	『탐라순력도』와 옛 사진에 나타난 건물 배치와 행사 장면	출처 아이콘·링크
C	유사 사례 추정	동시대 다른 관아·누정을 참고한 세부 형태와 재료	반투명·점선 처리
D	창작적 보완	AI 컬러화, 인물의 의복·표정, 배경 군중	'AI 생성' 표시

관덕정 광장에는 1901년과 1947년, 1949년의 죽음이 새겨져 있다. 맥도널드(Macdonald, 2009)가 '어려운 유산(difficult heritage)'이라 부른 이러한 기억은 오늘날 기억할 의미가 분명하지만, 공동체의 긍정적 정체성과 쉽게 화해하기 어려운 과거다. 기술적으로는 1947년 3월 1일의 발포 장면을 실감형 영상으로 재현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희생을 다시 스펙터클의 대상으로 만드는 재현은 유족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희생자 얼굴은 실존 인물에 대한 기억을 덮어쓸 위험이 있다.

이 영역에서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실감 재현보다는 기록 사진과 증언, 그리고 비어 있는 광장의 침묵을 활용하는 성찰적 연출을 우선해야 한다. 아울러 4·3 유족과 관련 종교계, 지역 공동체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합의 절차를 사업 구조 안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의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무의 수범자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이며,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의 해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AI로 제작한 문화유산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 법적 표시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유산 콘텐츠는 시민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적 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AI 생성 사실과 근거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공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화형 AI 해설처럼 기관이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의 적용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술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초상, 기증 사진과 보도 자료의 저작권 처리, 그리고 국가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물리적 장치를 설치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허가 문제도 사업 초기부터 점검해야 한다.

메타버스 열풍 속에 등장한 공공 플랫폼의 상당수는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의 공공 메타버스로 내세웠던 '메타버스 서울'은 약 55억 원을 투입하고도 2024년 10월, 출시 1년 9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였다(오현주, 2024).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특정 플랫폼이나 앱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기보다, 어느 플랫폼에서도 다시 쓸 수 있는 개방형 표준(glTF, IFC, CityGML 등)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를 꾸준히 갱신할 운영 주체에 투자해야 한다. 플랫폼은 유행에 따라 바뀌지만, 잘 기록된 데이터는 다음 세대의 기술로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재현의 성과는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실제로 광장을 찾는 사람의

수와 머무는 시간, 원도심 상권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디지털은 광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광장으로 다시 불러오는 장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Ⅴ. 실행을 위한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시민 참여와 윤리적 합의를 후순위로 미루지 않도록 2단계에 배치하였다.

〈표 3〉 관덕정 디지털 재현·확장 단계별 추진 방안(안)

단계	주요 내용	핵심 산출물	참여 주체
1단계 기반 구축	관덕정·제주목 관아 통합 정밀 3D 기록, 사료·사진·언론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통합, 근거 등급 기준 마련	디지털 원본 데이터셋, 통합 메타데이터 목록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지역 언론사
2단계 시민 참여	'관덕정 기억 지도' 구축, 주민 구술 채록과 옛 사진 공모, 어려운 기억의 재현 가이드라인 합의	구술·사진 아카이브, 재현 윤리 가이드라인	주민·상인, 4·3 유족 등 관련 단체, 대학
3단계 현장 확장	현장 AR 시간여행과 웹 디지털 트윈 공개, AI 해설 시범 운영, 야간 행사·학교 교육 연계	시민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성과 평가 보고서	문화기획자, 창작자, 교육기관

이러한 단계적 추진을 위해 토론자는 가칭 **'관덕정 디지털 기억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유산 관리 주체인 세계유산본부가 데이터의 관리 책임을, 제주학연구센터가 사료 고증과 근거 등급 검증을, 지역 언론사가 보도 아카이브의 공유를, 대학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맡고, 주민과 유족 등 관련 단체가 기억의 주체로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다. 특히 언론 아카이브의 공공 활용은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 개별 기관의 선의에만 맡기기 어려운 만큼,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언론학회가 기록 공유의 원칙과 절차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Ⅵ. 종합토론을 위한 논점 제기

토론자는 종합토론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과 다음의 질문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모두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 건축·유산 관리·문화기획·언론의 관점이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재현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덕정은 1924년의 변형과 2003~2006년의 해체·보수 등을 거치며 여러 차례 모습이 달라졌다. 디지털 재현에서 하나의 기준 시점을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점별 병렬 재현이 더 바람직한가. 건축사

와 유산 관리의 관점에서 특히 깊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광장의 물리적 설계와 디지털 레이어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가. 관덕정 광장의 향후 재구조화 논의에서 AR 기준점, 공공 무선망, 바닥 표식과 같은 디지털 요소를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행 동선이나 행사 운영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주민·상인과의 공론화 도구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다.

'어려운 기억'의 재현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할 것인가.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같은 기억을 디지털로 다룰 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기술 제공자나 행정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유족과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결정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역 언론 아카이브를 어떻게 공공의 기억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지역 언론이 축적한 보도사진과 영상은 관덕정의 근현대 기억을 복원하는 핵심 자료다.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하면서 이를 연구·교육·재현에 활용하려면 어떤 원칙과 절차가 필요한가.

'관덕(觀德)'이라는 이름은 『예기(禮記)』「사의(射義)」 편의 '사자소이관성덕야(射者所以觀盛德也)', 곧 활쏘기로써 성대한 덕을 살핀다는 구절에서 왔다. 과녁을 맞히는 결과보다 쏘는 이의 자세와 마음을 '본다'는 데 방점이 있다.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덕정의 디지털 재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과거를 되살리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장소의 기억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에 건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정직함, 아픈 기억 앞에서의 절제, 그리고 시민과 함께 기억을 쌓아 가는 개방성.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디지털 관덕정은 화려한 볼거리를 넘어 제주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광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언론학회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질문들이 한층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문화재청(2007). 『관덕정 실측수리보고서』.

이형상(1702).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고상현(2019. 5. 9.). "'4.3 학살의 시작' 제주 관덕정…비극의 기억은 없다". 노컷뉴스.

오현주(2024. 8. 13.). "55억 들인 서울시 메타버스, 10월 16일 종료…1년 9개월 만에 '안녕'".

파이낸셜뉴스(뉴스1).

황경근(2017. 2. 10.). "제주 관덕로 '차 없는 거리' 주민 반발에 난항". 서울신문.

Hall, S. (Ed.)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Macdonald, S. (2009).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London: Routledge.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The London Charter for the Computer-based Visualisation of Cultural Heritage, Version 2.1 (2009).

The Seville Principles: International Principles of Virtual Archaeology (2011; ICOMOS General Assembly, 2017).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지역언론의 시각에서 본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변 지 철
연합뉴스 제주취재본부 기자

관덕정과 제주목관아는 오랜 세월 제주 역사와 함께해 온 하나의 역사문화 공간이다. 조선시대 관덕정에서는 군사훈련과 활쏘기, 과거시험 등이 이뤄졌고, 제주목관아에서는 제주목사가 제주 전역의 행정을 관장했다. 두 공간은 제주의 정치와 행정,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관덕정 앞 광장은 1901년 신축항쟁과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곳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며 돌아갈까. 복원된 건축물을 둘러보고 사진 몇 장을 찍는 것으로 관람을 마친다면 아쉬운 일이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가 제주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건축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거 제주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오늘날 도민과 관광객이 그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는 유산'에서 '경험하는 유산'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공간이 지닌 한계와 가능성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주목관아는 서울의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대규모 궁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건물 대부분이 사라져 지금의 건축물은 발굴조사와 고증을 바탕으로 다시 지은 것이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네 차례의 발굴조사와 시민들의 기와 기증 운동 등을 거쳐 복원됐지만, 이런 과정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제주목관아 앞에 자리한 관덕정은 제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1448년 창건된 뒤 여러 차례 보수와 복원을 거치며 600년 가까이 제주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다. 제주목관아가 복원으로 되살아난 공간이라면, 관덕정은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공간이다.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을 하나로 엮으면 제주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전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건축물의 규모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 공간에 담긴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고 활용하느냐다. 그렇다면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

탐라순력도에서 찾는 제주만의 역사문화

그 실마리는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의 순력과 당시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라순력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탐라순력도는 단순한 옛 그림이 아니다. 제주목관아와 관덕정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으며, 당시 제주의 행정과 군사, 교육, 경제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지난 10월 24일 제주목관아 망경루 앞마당에서 조선시대 노인 공경 잔치인 '양로연(養老宴)'이 재현됐다. 이형상 목사가 노인들을 초청해 베푼 잔치를 그린 탐라순력도 '제주양로'를 바탕으로 한 행사다. 옛 기록 속 장면을 되살리고 경로(敬老)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서는 이전에도 다양한 역사 재현행사가 열렸다. 2001년에는 제주목사 도임 행차 재현행사가 열렸고, 2013년에는 '신 탐라순력도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귤림풍악과 과거시험, 양로연, 용연에서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던 '병담범주' 등을 재현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어린이들이 유건과 도포를 차려입고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체험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최근에는 제주목관아를 활용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제주 무형유산 대전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목관아에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에는 24일간 9만2천792명이 방문했다. 역사문화 공간도 매력적인 프로그램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시도는 관덕정과 제주목관아를 살아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양로연이나 과거시험, 전통공연 등은 다른 지역의 궁궐이나 관아에서도 흔히 열리는 행사여서 제주만의 특색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행사의 의미와 성과는 인정하되 앞으로는 한정된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탐라순력도에 담긴 여러 장면 가운데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을 골라 재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감귤봉진'과 '귤림풍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탐라순력도의 감귤봉진에는 제주목사가 임금에게 진상할 감귤을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감귤은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이었다. 제주 감귤이 익어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제주목관아에서 감귤봉진을 재현해 볼 것을 제안한다. 제주목사가 진상 감귤을 점검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당시 감귤 품종과 재배·진상 과정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제주 감귤산업 이야기를 더하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탐라순력도의 '귤림풍악'을 더하면 좋겠다. 귤림풍악에는 제주성 안 귤나무 숲에서 목사 일행이 풍악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노랗게 익은 귤 숲 속에서 펼쳐지는 잔치는 다른 지역 관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풍경이다. 감귤봉진이 귤을 거둬 임금에게 올리던 공적인 장면이라면, 귤림풍악은 귤이 익는 계절을 즐기던 풍류의 장면이다. 두 장면을 하나로 묶어 낮에는 감귤봉진을 재현하고, 인근 귤나무 아래에서 전통음악 공연을 펼친다면 보고 듣고 맛보는 제주의 가을 잔치가 될 수 있다. 과거 재현행사에서 이미 귤림풍악을 선보인 적이 있는 만큼, 이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해마다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제주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에는 임금에게 바칠 말을 제주목사가 점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제주는 나라에 필요한 말을 공급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서 공마봉진을 재현하고, 제주마의 역사와 목축문화를 소개한다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가 될 것이다. 실제 말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제주마축제와 탐라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와 결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관덕정의 본래 기능을 살린 활쏘기 행사도 생각해 볼 만하다.

관덕정이라는 이름은 유교 경전 '예기'의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살피는 것이다(射者所以觀盛德也)'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옛사람들은 활쏘기를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수양으로 여겼다. 실제로 관덕정 앞에서는 활쏘기 대회가 열렸고, 탐라순력도의 '제주사회'에도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살려 관덕정 앞에서 전통 활쏘기를 재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쏘기의 정신과 예절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교육과 독서문화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있다.

탐라순력도의 '승보시사'는 관덕정에서 유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2014년 관덕정에서 열린 어린이 과거시험 재현행사에서는 탐라순력도를 주제로 한 백일장이 열리기도 했다.

이런 역사를 살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 축제를 열면 어떨까. 학생들이 책을 읽고,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글을 쓰며 백일장과 독서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학문을 겨루던 공간을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셈이다.

굳이 행사장을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만 한정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도심 곳곳에서 독서 행사를 여는 것처럼,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산지천 광장 등 원도심 여러 곳을 묶어 책 축제를 열 수 있다. 시민들이 책과 문화행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걷게 하자는 것이다. 역사문화유산 활용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주목관아의 종을 다시 울리자는 제안도 하고 싶다.

1435년 쓰인 '홍화각기'에는 제주목관아 외대문에 종과 북을 달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탐라순력도에도 그 모습이 등장한다. 당시 종은 시간을 알리고 성문을 여닫는 신호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이 종이 일본 도쿄 네즈미술관에 소장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제주도가 학술용역을 거쳐 국가유산청과 환수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이다. 종의 반출 경위와 환수 가능성을 계속 살펴보되, 실물 환수가 어렵다면 고증을 거쳐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제주목관아에서 제야의 종을 울리며 새해를 맞이한다면 제주성의 시간을 알리던 종소리를 오늘에 되살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적지 않다.

1년 열두 달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핵심은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봄에는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 탐방, 여름에는 야간 공연과 문화행사, 가을에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재현행사, 겨울에는 세시풍속과 새해맞이 행사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4월에는 관덕정 앞 광장이 간직한 제주4·3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여는 것도 뜻깊을 것이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현장에서 그날을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자리이다.

대규모 행사 몇 차례보다 매주 또는 매달 열리는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이 관덕정과 제주목관아를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역사 해설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서울 경복궁과 창경궁 등을 찾았을 때 전문 해설사뿐 아니라 역사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이 진행하는 해설을 들은 적이 있다. 건물 이름과 건립 연도를 나열하는 설명보다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낸 해설이 훨씬 흥미롭고 유익했다.

제주에서도 지역 역사학자와 향토사 연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원도심 주민 등이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의 역사 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은 해설자 교육과 공간 사용, 예약·홍보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민간 주체가 역사 해설과 탐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서 출발해 제주성 흔적과 주변 역사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제주4·3을 비롯한 근현대사의 기억까

지 짚어보는 탐방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는 제주의 역사적 영광만 간직한 공간이 아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아픔, 원도심의 변화가 함께 쌓여 있다.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다른 지역의 웅장한 궁궐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탐라순력도에 담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제주만의 방식으로 되살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찾아 배우고 즐기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1년 열두 달 언제 찾아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도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편하게 들르는 친근한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제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러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건물을 보존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제주도편에서 복원된 제주목관아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중후한 연륜을 말해줄 아름다운 나무가 없고 건물에서 사람의 체취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지은 관아 건물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사람의 체온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에 필요한 것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가 옛 모습을 보존·복원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이 역사를 만나고, 미래 세대가 그 의미를 배워가는 살아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관덕정, 다시 잇는 광장의 기억:

문화기획 사례로 본 관덕정 활용의 방향

하 정 아

문화기획가, 축제 감독





01 질문의 출발

관덕정·제주목 관아에는 이미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2026년 야간개장과 연계 프로그램의 공지 일정에서 확인한 운영 기반

132일

5~10월 야간개장 편성일
2025년 야간개장 방문객 70,561명

15회

귤림별곡 6 · 귤림풍악 6
수문장 교대의식 3

14일

2026 미디어아트 전시
〈펠롱펠롱 빛 모드락2〉

야간개장·거리공연·특별공연·수문장 교대·미디어아트 — 이미 다양한 운영 형태가 존재함

※ 야간개장 132일은 편성 기준. 공연 15회 중 수문장 1회(9/26)는 주간 운영. 전시 14일은 야간개장과 중복됨.

출처: 비짓제주 2026 귤림야행·펠롱펠롱 빛 모드락2; 연합뉴스(2026.4.30)

01 질문의 출발

수도권 궁궐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를까?

제주목 관아 · 관덕정

제주목 관아 정기 야간개장
공연 3종 · 미디어아트 전시
관아와 광장 중심으로 편성됨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별빛야행·달빛기행·생과방·야연·고궁음악회
궁중문화축전·전통공연·특별관람 등
복수의 궁궐·기관에서 폭넓게 운영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규모의 차이는 확인됨.
그러나 단순한 목록과 총량으로 경험의 깊이까지 비교할 수는 없음.

출처: 국가유산진흥원·궁능유적본부 2026 공식 일정, 비짓제주 / 동일 기준 전수조사 아님

02 질문의 재정의

정말 '프로그램의 부족'만이 문제일까?

기존의 공연과 전시가 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도 살펴봐야 함

01

장소 경험의 깊이

즐거운 관람을 넘어
관덕정만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는가?

02

경험 이후의 관계

행사가 끝난 뒤에도
다시 찾고 싶거나
관심을 이어가는가?

03

일상 속 이용

특별한 행사일 외에도
제주 사람이 머무를
이유가 있는가?

프로그램의 양적 개발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오래 남는지 묻는 일임

02 질문의 재정의

관덕정은 제주의 상징. 그렇다면 내게도 의미 있는 장소인가?

역사적 가치의 크기와 시민 개개인이 경험하는 의미는 같지 않을 수 있음

높은 상징성

제주의 역사적 중심
국보급 제주의 문화유산
공동체의 정체성을 품은 장소

↔

시민의 현재적 경험

나에게 어떤 곳인가?
이곳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시 찾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관덕정을 아는 사람을 넘어,
그곳을 자신의 기억으로 간직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향**

02 질문의 재정의

관덕정의 의미는 왜 '광장'과 함께 이해해야 할까?

상징·역사·장소의 가치는 건축물과 광장, 주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남

01

상징성

제주읍성의 역사적 구심점
관아·광장·옛길이 만나는 중심

02

역사성

군사·행정의 기록부터
생업·시민의 저항과 생활의 기억

03

장소성

관덕정·월대·답도·광장·관아·옛길이
하나의 공간적 관계를 이루었음

건축물은 남아 있지만, 관덕정과 광장이 함께 작동했던 역사는 충분히 읽히고 있는가?

03 문화가 할 수 있는 일

광장의 회복은 제주에 무엇을 되돌려주는 일인가?

물리적 복원과 함께 시민이 공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회복할 필요

01

공간의 회복

옛 광장과 도로의 관계를
자료에 근거해 드러내고
현장에서 다시 읽게 함

02

기억의 회복

공식 기록과 생활사,
헌와에 담긴 시민의 선택을
현재의 이야기로 연결함

03

공공성의 회복

시민이 자유롭게 머무르고
만나며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적인 이용을 넓힘

문화는 광장을 물리적으로 복원하지 못하지만, 그 장소와 시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음

03 문화가 할 수 있는 일

좋은 콘텐츠는 장소와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드는가?

좋은 콘텐츠가 언제나 애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

01	**새로운 시선**	익숙한 공간을 다르게 보게 함
02	**기억에 남는 경험**	지식 전달을 넘어 자기 이야기로 남김
03	**정서적 연결**	다시 찾고 싶거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듦
04	**지속되는 관계**	주민·지역단체와 관계가 계속되는 기반이 됨

→ 감동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여지를 설계하는 일

참고: 채경진(2022), 「문화유산 인식, 지역애착도, 지역공동체 간의 구조적 관계」, 『문화정책논총』 36(3)

04 의미 있었던 문화기획 사례

많은 콘텐츠보다, '오래 남는 좋은 경험' 하나

서로 다른 세 사례가 보여주는 장소 경험의 설계와 지속적인 관계의 가능성

01

안동 · 병산서원스테이

기존의 설명·교육 중심 서원
체험에서머무름·사유·쉼을 통해
장소성을 느끼는 경험으로

02

하동 · 성돌의 귀환

몰입형 탐험과 지역 협업을 통해
다시 찾고,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갖는 가족들의 사례로

03

제주 · 성읍달빛기행

제주의 집·골목·생활문화에
세 세대의 이야기가 겹치는
시공간 몰입 경험으로

공통의 방법은 콘텐츠의 수를 늘리기보다,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경험으로 만나게 하는 것임







사유의 숲으로 만나는 서원

전통적인 강학·해설 중심 체험을 체류와 사유의 경험으로 재설계함

설명·관람

↓

체류·사유·쉼

만대루의 풍경과 차담, 선비의 소반,
서원에서 보내는 하룻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함

변화의 핵심

서원의 사상을 외우게 하기보다
건축과 자연 안에서 저마다 사유하도록 함

출처: 국가유산진흥원 2023 세계유산축전 병산서원스테이 공식 안내

04 사례 ② 하동 〈성돌의 귀환〉

하동을 '다녀온 여행지'에서 '또 소식이 궁금한 곳'으로

연극·미션·지역 숙박·식사가 결합한 1박 2일 경험

7년째 · 30만 원

2026년 기준 · 유료 체류형 프로그램

6회 · 138명 모집
예매 개시 11일 만에 마감

재방문	첫째 아이와 다녀온 가족이 둘째 아이, 친구 가족과 다시 찾는 사례
지역애착	하동의 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참가자들의 변화(현장 관찰)
지역협업	호텔매계·마을 밥상·지역 간식 등 주민과 업체가 경험의 제작에 참여

→ 2023 문화재청장상 수상 (「천년 하동의 재발견」 우수사업)

출처: 경남신문(2026.4.6), 2023 우수사업 사례집·브릿지경제(2023.12.18). 재방문·애착은 현장 관찰

04 사례 ③ 제주 -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그니처 헤리티지 프로젝트' 〈성읍달빛기행〉

초가와 골목, 사람과 세대의 시간이 겹치는 성읍의 밤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그니처 헤리티지 프로젝트 · 장소특정형 야간 프로그램

공간
+ 사람 + 시간

초가·돌담·안거리·밖거리…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건축을 설명하기보다
세 세대의 삶과 제주 생활문화의 지혜를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함

→ 장소가 달라지면 이야기와 경험의 방식도 새롭게 설계해야 함

출처: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성읍달빛기행〉 공식 프로그램 안내

05 좋은 기획의 조건

콘텐츠의 질은 기획자 한 사람의 재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음

조사와 해석, 지역 협력, 반복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제작환경이 필요함

깊이 있는 사전조사

기록·공간·사람의 삶을 함께 연구

창의적 해석의 결합

고증과 창작을 구분하면서 경험 설계

현지와의 지속가능한 협업

지역 단체·업체·주민이 제작의 일부가 됨

축적할 시간과 지원

기획·파일럿·수정·기록·반복 운영을 위한 지원

여러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만큼, 좋은 경험을 깊고 오래 만들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함

05 좋은 기획의 조건 - 관덕정에 적용할 방법

그렇다면, 관덕정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세 장소의 경험이 알려준 방법을 관덕정의 이야기로 다시 바꾸어야 함

머무를 **이유**를 만들고,
다시 찾고 싶은 **관계**를 만들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을 만나게 하는 것.

관덕정에는 이미 그 출발점이 있음 — **'헌와'**

06 관덕정이 가진 이미 강력한 이야기

헌와(獻瓦) — 제주 사람들은 이미 유산 회복에 참여했음

1999년 관덕정 광장의 복원 기공식과 이후 이어진 제주목 관아 헌와 운동

4만 5천여 장

헌납된 기와

유산을 지키려 모인 손길

1만 3천여 명

참여한 사람들

자신의 이름과 바람을 남김

220개

참여 기관·단체

함께 보존한 공동체의 힘

→ 헌와의 의미는 기와의 수보다, 시민이 유산을 '우리의 장소'로 여기고 행동했다는 기억임

출처: 연합뉴스 「제주목 관아 복원 20년」(2022.10.28); 복원 1999~2002년 참여 통계

06 관덕정이 가진 이미 강력한 이야기

헌와의 감동을 재현하기보다, 그 기억을 오늘과 잇는 방법

정해진 감정을 요구하지 않고 시민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참여하도록 함

01

그날의 사람들

기와·서명·사진·구술에서
복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택과 사연을 찾아냄

02

오늘의 광장 기록

시민의 옛 사진과 현재의
기억을 스스로 남기는
열린 기록 프로젝트

03

다시 찾아올 이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이야기
산책·작은 공연·모임을
일상 속에 반복 운영

과거에는 기와로 관아를 다시 세웠다면, 오늘은 경험과 기억으로 광장의 관계를 잇는 것

07 관덕정 활용의 방향

국보 승격·광장 회복·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적 경험'으로 잇다

학술 연구·도시계획·지역정책이 서로 다루는 과제를 문화기획으로 연결함

01

유산의 가치 공유

관덕정의 건축·광장·사람을
함께 읽는 해설과 현장 경험.
국보 논의의 사회적 이해 확대

02

오늘의 광장성

헌와 기록과 시민 참여를
정기적인 열린 문화활동으로
이어가는 일상의 광장

03

원도심과의 연결

관덕정에서 골목·상점·
생활사로 경험을 넓히고
다시 찾을 이유를 쌓음

성과도 방문객 수뿐 아니라, 시민 재방문·기억 기록·지역 참여로 함께 살펴야 함

맺으며



관덕정에
새로운 행사를 더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이유를 만드는 일임.

문화유산 활용은
과거의 시간에 오늘의 기억을 더하는 일.

그리고,
오래 남는 좋은 경험 하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나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27년도 예산안은 꼼꼼하게,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날카롭게!
도민의 목소리로 제주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제456회 제2차 정례회

▶ 2026. **11. 10.**(화) - **12. 9.**(수), 30일간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 현장방문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의회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의회